

당신의 아이디어가 미래의 인천입니다



미래 인천발전 生生 아이디어 공모대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기간

2015. 10. 5. ~ 11. 13 (40일간)

공모대상

인천시민 누구나 (남녀노소, 직업에 관계없이)

※ 개인 또는 단체 제안 가능(단체의 경우 4인 제한)

공모주제(분야)

미래계획, 미래 먹거리 전략사업, 중국 교류,
관광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미래도시 조성,
원도심 개발, 사회적 약자 지원, 균형재정 달성,
기타 미래 인천발전에 필요한 사항

후원·협조

인천광역시, 기업체

공모방법

우편, 인터넷, Fax, e-mail, 직접방문 등 자유롭게 참여

• 우편, FAX,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303호
Fax, 032) 439-0496, Tel, 032) 439-0493

• e-mail : ideaincheon@hanmail.net(소속, 주소, 성명, 연락처 등 명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 필요시 도안·사진 등 자료첨부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1차(예비심사) : 창의성, 현장성, 경제성, 시정기여도 등 검토

2차(본선심사) : 7명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 심사기준 : 현장성(40%), 창의성(30%), 시정기여도(30%)

※ 심사위원 자격요건 미달시, 사상이 재한될 수 있음.

시상내역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구분	일반인·대학생		초·중·고등학생		비고
	인원	시상내용	인원	시상내용	
최우수	1명	상장, 부상 (1000만 원 상당의 상품)	1명	상장, 부상(노트북)	
우수	2명	상장, 부상(해외 항공권)	2명	상장, 부상(스마트폰)	
장려	3명	상장, 부상(국내 항공권)	3명	상장, 부상(상품권)	

※ 우수제안자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 11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11

가을, 섬에 스미다

인천광역시

동막에서

이세기

동막 조개고갯길 뒤울가
돼지우릿간이 오랜 비바람을 맞고
머위의 꽃대궁이 흔들리던

바람만이 여전히 동막이라는 이름의 마을과
갯벌을 기억하며
지금은 동막 전철역 표지판으로 남아
아파트촌의 불빛을 바라볼 뿐

동막으로 가는 길은 이젠 없다

비오리 떼 날아오던,

낮은 구릉의 애기진달래와 개울가 갈대 살 부비던
동막 옛길과
소금기 어린 어촌계와 염창

동막이 사라졌다

갯가에 모여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햇동죽을 캐며
갯갯을 해먹던 겨울 시린 입김들

— 《창작과비평》 117호(가을호, 2002)

조갯더미 조갯길을 따라
바다로 난 고갯길을 넘으면
동막인데
저런, 동막이 사라졌다



이세기(李世起)

1963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하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시집 《먹염바다》 《언 손》 등이 있으며,
산문집 《이주, 그 먼 길》 《흔들리는 생명의 땅, 섬》 등이 있다
2005년 우현예술상을 수상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바로북,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인천만의 가치창조 등대섬 선미도	06
쫄인 디자인 도시 인천	12
포커스 인천시 8대 전략 산업	16
애! 영종(永宗) 영종진 복원	18
영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22
깊어가는 가을 인천의 선술집	24
내 길 내 일 영화감독 백승기	30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2015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	32
까치발로 본 인천 ⑪ 용현동 엑슬루타워아파트 → 수인역	34
CULTURE INFO	38
시간 속을 걷다 컴팩스마트시티 특별전	42
NEWS BRIEF	44
COUNCIL NEWS	48
포커스 주민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52
탐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53
INFO BOX	54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57
모닝 커피 한잔 김남일 인천소방본부 소방관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1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사진 김보섭·김성환·김상덕(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NTENTS 2015. 11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63



COVER STORY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거리, 거리도 마음도 가까운 바다. 그 바다가 품은 168개 보물섬. 인천시는 이들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만의 가치창조'의 일환으로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섬으로 오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저 마디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쉽니다.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그 답변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이용 안내 앱 '120 인천', SNS @120incheon,
전화 및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권의 수령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접수일을 포함해 3일째 오후 2시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감 20분 전
에 방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을 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아라뱃길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요.

↳ 지하철을 타고 청라국제도시역에서 내려 77-1번 버스로 환승해 인천여객터미널에서 하차하시면 됩
니다.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의 대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유람선 882-5555.

송도국제도시가 나온 지도를 구하고 싶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ifez.go.kr)로 들어가 개발계획 ⇒
송도국제도시 ⇒ 도면/문서다운로드를 통해 지도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나네요. 직접 방 문해서 신청하려면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나요.

↳ 승용차 요일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인천시 승용차 선택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에 접속한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태그 수령 필수). 방문 접수를 원하실 경우, 시 교통기획과
동 주민센터 및 군·구청 교통행정과를 찾으시면 즉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그건 이렇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자 언론에 보도된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 국립연구소 만드나'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 문화재청과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립문화재연구기관 설립 관련 연구용역.
- 문화재청 소속 국립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결과, 문화재청 조직 개편안을 담고 있다.
- 연구용역을 토대로 10월 중에 설립 여부 결정 예상.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명 내용

- '문화재청과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립문화재연구기관 설립 관련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
⇒ 연구용역은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으로서 과제명은 '문화재 관리체계 정상
화 방안 연구'임.
- '문화재청 소속 국립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결과, 문화재청 조직 개편안을 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 최근 문화재청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용역은 국립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검토한 바 없음.
- '연구용역을 토대로 10월 중에 설립여부 결정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 ⇒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연구
는 종료되었으며, 10월 중 결정은 사실이 아님.
-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 고려역사문화 연구기관의 강화 설립 건
의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인천 시민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권욱현(37·경기도 김포시)

새롭게 다가온 인천

사실 전에는 인천을 잘 몰랐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도시, 바다가 있는 도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인천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점점 인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천은 알면 알수록 참 다채로운 매력
을 지닌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공항과 바다, 섬으로만 이야기되는 곳이 아니었
습니다. 중구 개항장 일대에 가면 차이나타운과 일본인 거리를 거닐 수 있고, 송도국제
도시로 가면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 드라마나 영
화, 광고 영상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 송도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굿모닝인천'을 구독하면서부터는 마음이 한층 더 가까워
졌습니다. 깊은 역사와 현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은 '다양한 얼굴'이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에 대해 더 알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십 초에 한 번, 가을 밤바다 빛으로 물들다

인천은 168개 섬을 품고 있다.
모두 '인천만의 가치창조'에 기여하는 소중한 보물섬이다.
선미도는 등대섬이다. 이 섬 등대는 1934년 처음 불을 켜 이래,
지금껏 파도가 파랗게 달려드는 바다를 홀로 지켜왔다.
십 초에 한 번, 등명기가 돌 때마다 살차게 뻗어가는 빛줄기.
그 빛을 위안 삼아, 오늘도 섬의 밤이 깊어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덕적도와 선미도 사이,
거리는 가깝지만
그 간극은 멀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등대섬

선미도 가는 길은 가깝고도 멀다. 인천항에서 남동쪽으로 51.1 킬로미터, 육지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리인 덕적도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져 있지만, 가는 배가 없다. 섬과 세상을 잇는 건, 덕적도와 선미도 사이를 간헐적으로 운행하는 행정선뿐. 섬에 주민이 살지 않아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는다.

덕적군도 바다 한편에 비밀스레 숨어있는 이 섬은, 세상 사람들의 발길을 쉬 허락하지 않는다. 선미도는 지형이 척박해 예부터 '악험도(惡險島)'라 불렸다. 섬 전체가 암석으로 이뤄져 있고 해변이 거칠고 절벽이 가팔라 사람이 다니기 쉽지 않다. 그 섬이 덕적도의 '예쁜 꼬리'라는 뜻의 선미도(善尾島)라는 이름을 얻은 건, 1934년 등대가 세워지면서 부터다.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등대지기 세 명이 머물고 있지만, 이 척박한 땅에 기대어 사는 이들은 없다. 한때는 열대여섯 가구 정도가 오롯이 살아가기도 했다. 대부분 6·25 전쟁 때 섬으로 온 피란민들로 거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거나 숲을 만들어 물으로 내다 팔며 근근이 살아왔다. 결국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하나둘 육지로 떠나고, 지금은 마을 터만 덩그러니 남았다.

선착장에서 오르막길을 돌아 대나무 숲을 가로지르다 보면 당시의 시간을 좇을 수 있다. 다 허물어진 숲 가마터와 가축우리, 빈 우물터에 어떻게든 살아가려 했던 그네들의 흔적이 애처롭게 남아 있다. 옛 동네 낮은 돌담에 둘러싸인 낡은 집 슬레이트 지붕 위로 세월의 먼지만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다.



1 가까스로 남은 옛 집터 2 선미도 등대를 지키는 삼총사. 왼쪽부터 이정민 소장, 김은홍 소장, 김진호 등대원 3 늘 긴장감이 흐르는 등대의 일상 4 선착장에서 등대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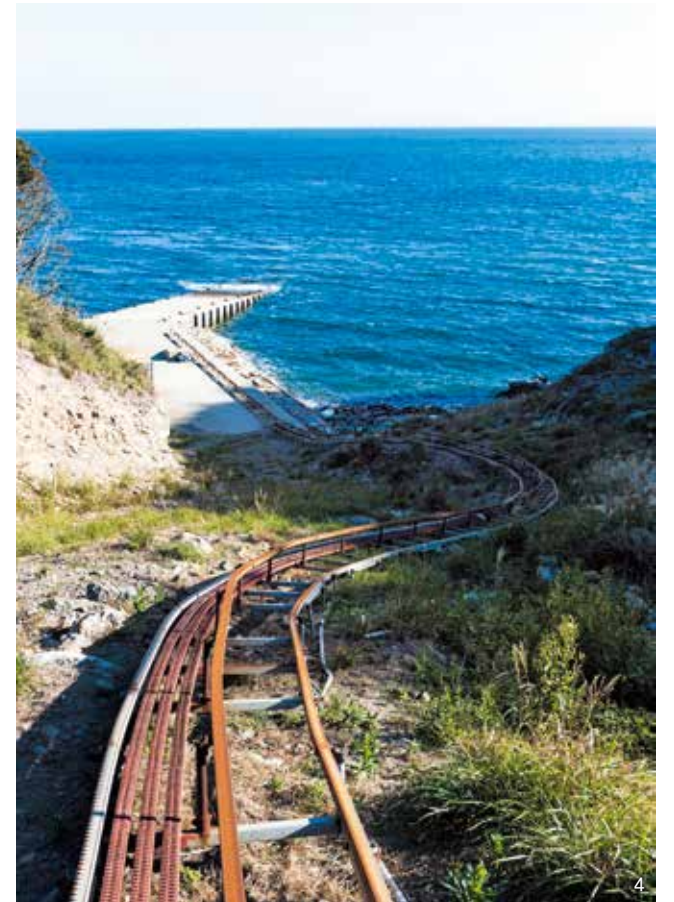
모두 떠난 섬 지키는 등대지기

선착장에서 등대까지 거리는 1.6킬로미터. 선미도 등대를 지키는 김은홍 소장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다. 모노레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걸어서 갈 생각이다. 높고 가파른 능선을 오르내리며 산 정상까지 올라야 하지만, 그는 엄연한 섬 사나이 아닌가. 거칠고 투박한 섬 길을 걷는 게 좋다. 섬의 온도는 육지보다 차다. 시월에 들어서면 벌써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추위가 느껴지지만, 어느새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윽고 마을 산등성이에 펼쳐진 초지에 다다랐다. 산턱에 털썩 주저앉아, 긴 호흡을 내신다. 그 뒤는 천 길 낭떠러지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이 목덜미의 땀을 한순간에 씻어낸다.

“선미도 바람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바람 세기만큼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그 폭만큼 파도가 일어나지요. 선미도의 바람은 흐르는 물처럼 결코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나를 늘 새롭게 하지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김 소장은 오랜 세월 공직에 머물며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해왔다. 하릴없는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쳐갈 즈음, 운명처럼 등대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보았다. 등대는 그저 햇살, 파도, 바람과 벗하며 바다를 향해 묵묵히 서 있을 뿐이다. 소란스러운 도시생활을 뒤로하고 등대처럼 살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섬에 오니 “과연 내 선택이 옳았나. 편리한 육지 생활에 길들여진 몸이 척박한 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다.

처음에는 온 바다를 뒤덮은 해무와 세찬 바닷바람을 싸워 이기려 했다. 풍향계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안개가 잔뜩 끼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눈앞이 캄캄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온몸이 끈적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차례 보내면서 점차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갔다. 자연과 싸우는 대신 그들이 건네는 소리에 기울이게 됐다. 초록으로 돌아나는 보송보송한 앞사귀, 철 따라 고운 꽃망울을 터트리는 들꽃... 말없이 밀려갔다 오기를 반복하는 파도, 그 안에서 숨바꼭질하는 바닷말과 말뚝성게, 애기가시덤불... 도심에서는 무심히 스쳐 지났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게 됐다.

“섬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거친 자연 앞에 서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문득문득 이 섬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곤 합니다.”

밤이면, 빛으로 가득 차는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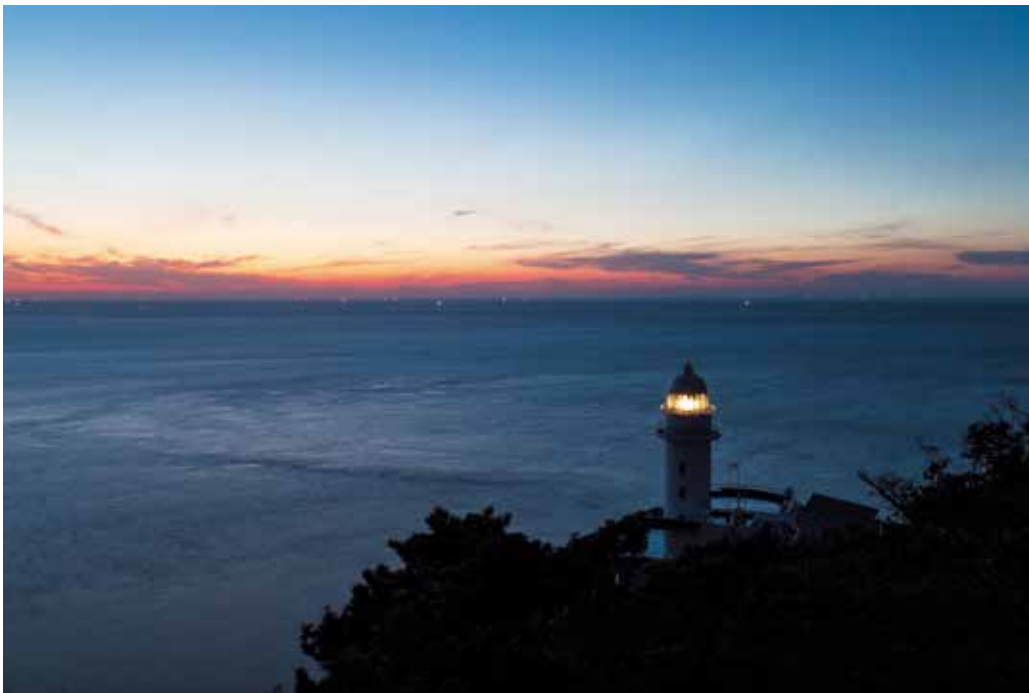
섬에는 대자연이 벅차게 살아 숨 쉰다. 굽이굽이 펼쳐진 능선을 따라 소나무와 소사나무, 혼합 활엽수 군락이 울울하게 숲을 이룬다. 그 안 높다란 나무에선 황조롱이가 큰 눈을 꾹빚이며 인사하고, 해안 절벽에선 사슴과 흑염소가 신기한 듯 쳐다보다 슬그머니 모습을 감추곤 한다.

자연이 항상 살갑지는 않다. 때때로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무서운 기세로 휘몰아친다. 특히 시월에 부는 하늬바람은 여간 매서운 게 아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면 닻을 올렸던 어선들이 급히 회항한다. 등대가 그 길을 열어 준다. 예고도 없이 마른 번개가 쳐서 등대지기들이 '침장'처럼 여기는 등명기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등대라 불리는 '항로표지 관리소' 안은 늘 긴장감이 흐른다.

선미도 등대는 김 소장과 이정민 소장, 김진호 등대원이 함께 불을 밝히고 있다. 이 소장은 항로표

지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남은 두 사람은 빛과 전파로 이뤄진 항로표지 기능을 유지하는 일을 주로 한다. 낮 1시, 밤 9시, 새벽 1시 하루 세 번 인근 무인표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양 기상을 관측하고 장비를 점검한다. 24시간 측각을 곤두세우고 등대의 원격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다. 셋이 각자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또 하나처럼 움직인다. 모두 등대지기가 천직인 줄 아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섬의 밤은 육지보다 빨리 찾아온다. 해가 고운 노을빛을 흘리더니 수평선으로 사그라지고 세상에 어둠이 내려앉는다. 등대지기가 등명기의 스위치를 올린다. 순간 번쩍이는 섬광. 살찬 빛줄기가 파도가 파랗게 달려드는 검은 바다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선미도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노을빛, 별빛, 달빛 그리고 등대빛. 선미도는 빛의 섬이다.

서쪽 끝자락에서 바다 지키는 소청도 등대

서쪽 바다 끝자락에 다다랐다면, 대청도 가는 길 바로 곁에 있는 소청도에 꼭 들려야 한다. 섬의 서남쪽에는 소청도 등대가 고고히 서 있다. 등대는 1908년 1월 1일 처음 불을 켜 이래, 밤 바닷길로 떠나는 배를 이끌며 어두운 바다를 홀로 지켜왔다. 등대 주변은 낚시터로 유명하다. 한두 시간 낚싯대를 드리우면 농어와 우럭이 쉬지 않고 입질을 한다. 등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경치도 예쁘다. 화창한 날이면 바다 건너 북한의 웅진반도까지 시선이 닿는다.

바다에 투영된 역사의 빛과 그림자 팔미도 등대

두 섬이 마치 여덟 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다 하여 팔미도라 불리는 섬. 그 섬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불을 밝힌 등대가 있다. 106년간 바다를 홀로 비추던 등대는 2009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등대는 1903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들었고, 6·25 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역사를 안고 있다.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댓불을 따라 빛과 그들을 함께해 온 우리의 역사를 비추어 본다.

등대섬 가는 길

선미도는 덕적도에서 500미터 거리로 가깝지만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없다. 그 때문에 덕적도에서 선미도를 오는 행정선을 타거나, 덕적도 주민에게서 배를 빌려 타고 섬으로 들어가야 한다. 소청도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우리고속훼리(www.urief.co.kr 887-2891~5)를, 팔미도는 여객선 현대마린개발 www.palmido.co.kr 885-0001)을 이용한다. 문의 선미도 등대 831-4927, 소청도 등대 836-3104, 팔미도 등대 831-4925



인천만의 가치창조 '섬 프로젝트' <섬, 숨이 되다> 발간

인천은 168개 섬을 품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이토록 아름다운 바다와 168개 섬이 있다는 건, 인천에게 '축복'입니다. 모두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보물섬입니다. 시는 이 섬들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만의 가치창조'의 일환으로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대변인실은 인천 섬이 품은 매력을 널리 알리고 인천만의 가치창조에 기여하고자 단행본 <섬, 숨이 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가깝고도 아름다운 바다, 168개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섬으로 오십시오. 삶에 섬표를 찍는 여유와 넘치는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바이탈(Vital)
2 더 송도 튜더스(The Songdo Tudors)
3 송도 트리(Songdo Tree)
4 대즐(Dazzle)

인천, 디자인에 젖다

일상에서 만나는 디자인은 표정 없는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소중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인천은 최근 공공 미술 프로젝트 '송도아트시티'를 조성하고, '2015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개최하는 등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미술관 아닌 공원에서 만나는 예술

가우디의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불린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 공원, 카사 밀라.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 Gaudi)가 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건축물들은 바르셀로나의 얼굴이 되었다. '예술'을 뛰어넘는 디자인은 그 도시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광자원이 되어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인 '송도아트시티'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지난 9월,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 공원에 예술과 일상을 넘나드는 국내외 작가 여덟 명의 작품이 설치됐다.

공원 광장 한가운데, 회색빛 콘크리트 바닥을 거대한 화폭 삼아 색색의 그림이 펼쳐진다. 최근 해외 미술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슈퍼그래픽의 일종으로, '예술 위를 걷는'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밋밋했던 컴팩트스마트시티는 영국 전통건축의 튜더(Tudor) 양식을 적용한 독특한 패턴으로, 이제야 제 이름에 걸맞은 옷을 입었다. 센트럴공원의 명물인 수상택시와 선착장은 연노랑과 회색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경쾌함을 살렸다. 산책로에 설치된 금속 파이프 소재의 조형물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파이프를 신기한 듯 훑고 지나고, 때론 미로 같은 조형물의 안팎을 넘나들며 술래잡기를 한다.

쉬면서 놀이하듯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예술. '송도아트시티' 프로젝트는 전시관에 갇혀 있는 소수를 위한 예술을 대중 앞으로 이끌어 낸,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낯은 것, 디자인으로 거듭나다

매일 출근길에 만나는 버스 정류장,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간판, 도심의 공원... 일상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디자인은 도시 곳곳에 스며있다. 이는 도시디자인과 건축학을 적용해 계획적으로 건설한 신도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좁다란 골목과 낮은 집들을 품은 원도심에서도 얼마든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NDSM(New Dock activities Stories Members)은 버려진 조선소에서 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



제물진두 순교기념경당

i 201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기간 11월 5일(목)~8일(일) 4일간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일대
 전시 내용 국내외 작가 및 디자이너 작품
 문의 201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운영본부
 1544-2757 www.indef.kr



송월동 동화마을



했다. 이끼가 움을 트던 컨테이너는 레스토랑으로, 방치된 크레인
 은 50미터 전망을 갖춘 호텔로 다시 태어났다.
 인천에도 디자인으로 역사와 문화를 복원한 공간이 있다. 중구
 개항장에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이다. 이곳은 허름한 도시건축물
 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110여 년 전 지어진 창고와 공장 등이 있던 쇠락한 도시의
 뒷골목은 예술의 옷을 입고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트플랫폼에서 멀지 않은 한중문화원 옆에는 ‘제물진두 순교기
 념경당’이 있다. 개항장은 우리나라 천주교의 밑알이 떨어진 곳이
 자 아픔이 응어리진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다. 이곳은 1866년 병
 인박해 당시, 현 해안성당 부근 제물진두에서 순교한 이들을 기
 리기 위해 세워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십자가 모양의 스테인
 드글라스 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굴곡의 역사가 담긴 구도심의 또 다른 디자인스팟이다.
 남구 송의동의 ‘우각로 문화마을’과 송월동 동화마을 등 오래된
 동네도 디자인의 옷을 입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텅 빈
 집과 쓰러져가는 담벼락, 황량한 콘크리트 계단에 하나둘 고운
 그림이 새겨졌다. 주민들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다.
 젊은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움직임은, 오래된 마을
 에 생기를 불어넣고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인천아트플랫폼

디자인도시를 향한 아름다운 움직임

더 새로운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할수록 삶은 풍요로워진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 바꾸고, 관광자원으로 사람들의 마음
 을 사로잡아 발길을 모으기도 한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달 12
 일 ‘인천시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5년을 목표로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성큼
 내디뎠다.
 이달 5일부터 8일까지는 ‘2015 인천국제디자인페어’가 인천아트
 플랫폼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 행사는 2004년 시작해 올해
 로 10회를 맞는다. 국내외 디자이너의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전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을 내세워 기업, 개인

디자이너, 학생 등 시민의 참여 폭을 넓혔다. 디자인 포럼과 교류
 전, 전시회 등 행사 내용도 다채롭다. 특히 3D 프린팅과 미래 디
 자인 소재 등을 전시하며 디자인 도시로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노장들이 쌓아 온 독보적 스타일, 젊은 디자이
 너들의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직관할 기대감으로 이미 설
 램은 시작됐다.
 디자인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
 소한 생활용품 하나, 머무는 공간 곳곳에 디자인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인천의 도시 공간도 달라지고 있다. 더 새롭게, 더 아
 림답게, 인천이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는 날이 멀지 않다.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 산업’



우리시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가 될 ‘8대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8대 전략 산업은 한국경제의 제반 여건과 인천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고려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8대 산업 선정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전략 산업 후보군을 놓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 전략 산업은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중장기 육성방안을 수립, 완료한다.









우리시가 이번에 선정한 8대 전략산업 분야는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이다. 시는 전통 제조업 및 뿌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첨단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민간투자와 우수 인재를 유치해 융·복합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

다. 이를 통해 인천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이자 동북아의 비즈니스·관광 허브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지역자원, 인프라 활용해 추진

시는 8대 전략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제조업인 첨단자동차, 로봇, 항공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R&D 기관,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정밀모터를 비롯한 제조업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준의 지역 대기업들과도 신뢰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바람직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모형을 구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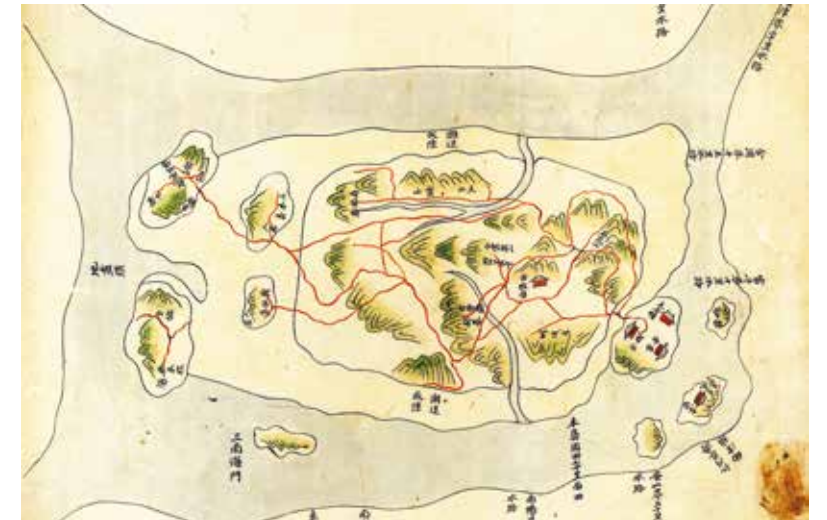


- | | | | | | | | |
|---|--|---|---|---|--|--|--|
|  <p>첨단자동차</p> <p>1</p> <p>서구 한국GM R&D센터와 청라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첨단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지역 산·학 연구기관과 함께 첨단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기업 대중국 수출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p> |  <p>로봇</p> <p>2</p> <p>청라 로봇랜드에 로봇산업지원센터, 연구소 등 로봇산업 진흥시설을 건립하여 육성한다. 특히 에듀테인먼트, 물류, 의료 분야를 특화하여 로봇산업 전시회, 로봇제품 사업화 등을 네트워크화한다.</p> |  <p>바이오</p> <p>3</p> <p>송도바이오프론티를 선도기지로, 송도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와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지식정보산업단지 등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융·복합 대규모 클러스터화를 이끈다.</p> |  <p>뷰티</p> <p>4</p> <p>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인 어울(Ouul)을 육성하여 뷰티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화장품 제조환경을 개선하는 뷰티산업 구조 고도화에 집중한다.</p> |  <p>항공</p> <p>5</p> <p>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우수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항공정비산업을 특화하고 산업·융합지구를 조성하며,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을 마련한다.</p> |  <p>물류</p> <p>6</p> <p>인천신항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3단계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배후물류 단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천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키운다.</p> |  <p>관광</p> <p>7</p> <p>중국인 관광객인 유커 특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섬 관광 테마를 발굴해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인천의 대표산업과 연계한 마이스(MICE) 행사를 발굴해 인천의 대표 마이스 브랜드 행사로 키운다.</p> |  <p>녹색기후금융산업</p> <p>8</p> <p>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금융을 포함한 관련 기능의 집중이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녹색기후금융 지식인프라를 정비하고, 인천녹색기후센터 설립하는 등 녹색기후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p> |
|---|--|---|---|---|--|--|--|

영종진의 아픈 역사를 아시나요? 140년 만에 햇빛 본다

영종도의 원래 이름은 제비가 많아 자연도(紫燕島), 즉 제비섬이었다. 얼마나 제비가 많았으면 섬 이름을 제비섬으로 붙였을까. 영종(永宗)의 한자 뜻은 '긴 마루'다. 지명에서부터 이미 활주ろ가 생길 것을 예견한 것처럼 보인다. 2009년 영종대교가 생기기 전까지 영종도는 오롯한 섬이었다. 만석부두에서 구읍배터를 오가는 배를 타고 다시 작은 종선으로 갈아타야 영종도에 오를 수 있었다. 영종은 인천에 속한 작은 섬이지만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사건을 품고 있다. 1875년 9월 벌어진 운양호 사건 또는 영종진 피격 사건이다. 역사에 갇혀있던 운양호 사건이 현대로 걸어나와 재조명되면서 역사 복원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류재형 자유사진가



영종도 고지도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 '을해왜요(乙亥倭擾)' 주장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작은 섬 영종에서 일어난 운양호 사건은, 아픈 역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영종주민이나 관련 단체는 이 일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신미양요, 병인양요처럼 일본인들이 저지른 침략 행위이기 때문에 '을해왜요(乙亥倭擾)'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1875년 9월 일본 군함 운양호는 강화도 초지진의 포격을 받아 보복 차원에서 초지진을 파괴하고 뱃머리를 돌려 영종진을 맹포격한 후 육전대를 상륙시켜 방화와 약탈을 자행했다. 이때 맨몸이나 다름없이 대항했던 영종진 수병 35명이 전사했고 16명의 포로, 그리고 대포 36문과 화승총 130여 정, 기타 막대한 군대 기물을 약탈당했다. 일본군들은 이것도 모자라 민간인의 집에 불을 질렀고 소, 돼지, 닭을 잡아가 함상에서 승전 축하 잔치를 벌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전몰 장정들에게 급료와 위문금을 내려주고 장사를 지내게 했다. 추모 사당을 짓고 희생된 장정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위령제도 지냈다. 일본과 강제합병되면서 폐지됐던 위령제는 2005년부터 다시 명맥을 잇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일본이 인천의 역사를 기록한 인천부사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운양호 사건은 역사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지 오래다. 전사한 장병들의 후손들을 만날 수가 없다. 당시 방어사령관이었던 이민덕 참사는 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곤장 백대를 맞고 풀려났다는 기록으로 볼 때, 그 후손들은 치욕적인 일로 생각해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추모비 건립, 역사복원의 첫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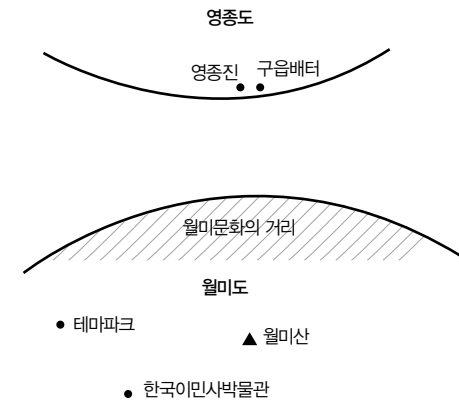
역사 속에 묻혀있던 ‘영종진 피격사건’이 다시 현재로 걸어 나오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위령제가 단초가 됐다. 이 위령제를 계기로 사람들은 당시의 아픈 역사에 관심을 갖고 행사를 벌이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위령제는 운양호 사건과 영종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영종진공원 내에 있는 구읍배터에 35명의 전몰장병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추모비가 건립되어 역사복원의 출발을 알렸다. 하늘 높이 치솟은 추모비가 영령들을 넋을 위엄 있게 기리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태평루가 건립되고 있다. 태평루도 운양호 사건 때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라진 누각이다. 영종도는 고려 때 예성강의 벽란도와 송나라 명주를 연결하는 교통요지였다. ‘경원정’이라는 객관(客館)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중국 사신들의 숙소로 사용됐다. 경원은 고려시대 인천의 지명이다. 태평루에서는 인천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저 멀리 서해바다의 거대한 물결이 한눈에 들어오고 맑은 날에는 월미도가 코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다. 태평루라는 이름은 세상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던 옛 위정자가 지었을 것이다.

영종도 역사를 사랑하는 주민들은 이곳에 동헌과 추모사당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금희(94) 어르신은 “영종진 복원과 더불어 추모사당을 세워 자라나는 후세들의 호국정신 함양과 역사교육의 산실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1 영종역사관 조감도. 건물은 제비의 모양을 디자인화 했다. 2 영종진공원에 세워진 추모비 3 복원 중인 태평루



2016년 하반기, 제비를 닮은 영종역사관 완공

2016년 하반기에는 영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종역사관이 완공된다. 역사관은 영종의 역사성을 고려해 제비의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차용했다. 전시장은 자연·지리,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영종진 방어전투, 근대 이후 영종과 국제도시로의 변천과정으로 나눠 보여준다.

영종 일대 지명 유래, 영종의 선사문화인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청동기시대 주요 유적과 유물, 영종의 고대문화를 보여주는 낙랑토기, 원삼국시대 수혈주거지와 패총, 중산동에서 발굴한 삼국시대 주거지 등이 유물과 모형으로 복원되어 전시된다. 또 고려시대 중국과의 교류거점을 보여주는 경원정과 태평암, 운양호 사건과 영종진 전투, 신공항 건설에 따른 영종의 변화 등이 주요 전시물로 꾸며진다. 유물 이외에도 발굴 모형, 디오라마, 고지도 등을 배치하여 흥미롭고 재미있는 전시장으로 만들게 된다.

야외전시관에는 운남동 고인돌, 용유동 선정비군, 연자매, 문인석 등이 이전되어 전시될 예정이다.

영종역사관이 완공되면 영종진의 역사 복원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고 배우는 교육의 현장이 될 듯하다.

영종진은

영종도 포구에 영종진이 있었다. 효종4년(1653년)에 설치되었고 현종4년(1668년)에 방어영으로 승격했다. 고종 12년(1875) 9월 일본군함 운양호가 포격을 가해 진의 일부가 파괴될 때까지 약 200여년 간 군사적으로 큰 몫을 담당했던 곳이다.

진(鎭)과 보(堡)는 조선시대의 주둔군대로, 진은 지금의 대대(大隊), 보는 중대(中隊) 규모다. 서로 상하관계는 아니고 주둔 병력의 수만 다르며, 각각 그 밑에 돈대가 소속되어 있다. **돈대란**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세운 초소로,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砲)와 총구멍을 설치해 두었던 군사기지다.

영종의 수백 년 토박이 역사와 문화 지킴이로...

국제공항, 신도시,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의 열풍으로 영종도의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영종도도 그 물결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영종도의 옛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어르신들이 있다. 선조 때부터 수백 년간 영종을 터전으로 살아온 분들이다.

김홍일(81) 어르신은 50년간 영종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다. 당시 영종의 유일한 사진관이었다. 영종 주민 중 그에게 사진을 안 찍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유일한 사진사였기에 영종의 풍경, 사람, 역사를 기록했다. 그의 가문은 33대째 영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김 어르신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도 생활유물을 수집한 컬렉터이기도 하다. 특히 운양호사건 때 우리 수군이 던진 140년된 포탄과, 옛날 영종도 금광에서 금을 채취할 때 사용했던 '얼레' 등도 수집했다. 이외에도 과거 영종 사람들이 쓰던 사발부터 시작해 소여물을 썰어 주던 작두, 베틀 등 생활유물만 수천 점이 된다. 이 유물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넣어 두기도 했다.

김 어르신은 수집한 생활유물을 전시할 공간을 갖고 싶었지만 영종의 땅값이 비싸지면서 꿈을 접었다. 지금은 수집한 유물 상당수를 건립중인 영종역사관에 기증했다. 그는 영종도의 개발 전 풍광과 옛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수천 장의 흑백사진을 갖고 있다. 젊은 시절 주말마다 영종도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찍은 자료들이다. 사진에는 지금은 사라진 영종의 지형, 건물,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사진에 촬영장소, 없어진 집의 주인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놓았다.

김 어르신은 “인천공항 자리는 옛날 낙지와 조개를 잡는 곳이었고,



1 옛 영종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학예회 장면 2 천주교 행사 3 영종도를 다녔던 종선 4 50년간 영종의 유일한 사진관을 운영한 김홍일 어르신 5 선조 때부터 수백 년간 영종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추금희 어르신



용유도는 물이 빠진 뒤 돌다리를 건너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 평생을 걸고 찍은 기록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생각이다. 수천 수만 컷의 사진정리 작업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다.

추금희(운남동 거주·94) 어르신도 영종 토박이다. 1592년에 선조들이 영종도에 정착했고 500년 넘게 영종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 추 어르신은 영종진 추모제와 복원사업에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다. 누구이지만 고향의 역사를 지키는 일에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추 어르신은 인천여고 교사를 지냈다. 퇴임 후 고향에 정착하면서 지역 문제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영종 역사에 관한 산증인이다. 영종의 옛 모습, 변화상을 꾸준히 보아 왔기 때문이다. 추 어르신은 앞으로 영종진이 잘 복원되면 관광지로,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영종동주민자치센터와 영종도서관에 '향토서가' 생겼어요

중구 영종동 주민자치센터는 북카페에 지역주민들이 자기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북카페에 설치된 '영종·용유 전용서가' 코너다. 이 서가에 비치된 향토 관련 서적은 70여 종. 그 중 관심을 끄는 서적은 1992년에 발간된 '영종·용유향토지'다. 영종·용유 향토지 제작에는 2011년 작고한



김근배 어르신의 노력이 컸다. 고 김근배 어르신은 영종도 국제공항,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자신의 고향이 송두리째 변할 운명에 놓이자 고향에 대한 이야기, 역사 등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바쁜 농사일에도 일일이 동네를 다니면서 구술을 엮고 자료를 모았다.

이 책은 영종·용유지역의 마을과 집집마다 내려오는 설화, 지역의 언어, 야사, 동네 지명 이야기,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집대성했다. 향토지이면서 인문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도 영종·용유에 관한 연구에 꼭 필요한 책이다.

서가에는 영종에 5백여 년간 살아온 추 씨 문중에서 만든 '명심보감', 1875년 운양호사건 때 빼앗긴 영종진에 있던 병서, 군서, 사자기, 대포, 조총 등의 자료가 담긴 '영종진 호적부'도 볼 수 있다. 이 호적부는 2005년 도쿄대학 박물관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도 영종도 마을들의 특징, 자연 지리 등을 화보식으로 엮은 '아, 영종' 등 다양한 책이 구비되어 있다.

영종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영종·용유 관련 책을 발굴해 구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종도서관은 영종의 사진, 지도, 도서 등의 기록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향토자료 아카이빙 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인사 간담회, 전시회, 강연회 등을 가졌고, 도서관 2층 참고 간행물실에 영종도 관련 도서 및 지역신문을 소장하고 있다. 또 영종도 향토자료 작품 공모전인 '옛 영종도의 모습을 찾습니다'를 이달 21일까지 열고 옛 자료를 모으고 있다.



신포주점

막걸리 한잔에 시 한 수 그 낭만 사라지고 추억만 남아

‘정에 취하고 맛에 반하다.’ 인천의 오래된 선술집들엔 연탄불처럼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지역의 시인, 화가, 문인, 사진가들의 단골집. 그들은 이곳에서 세상을 얘기하고 예술을 논했다. 선술집들은 세월을 켜켜이 쌓으며 역사가 되었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막걸리 한 순배가 돌면 이곳에선 누구나 친구가 된다. 걸쭉한 막걸리 한 사발엔 진한 사람 냄새가 녹아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류재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신포주점

닭강정의 고소한 냄새가 술술 풍기는 신포 국제시장 들머리를 지나 안쪽으로 쪽 들어 가면 정직한 고딕체로 쓴 간판, 낮은 조명,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귀들이 낙서처럼 벽을 도배하고 있는 정감 넘치는 선술집을 만날 수 있다. 신포주점, 이곳에서만 48년째 영업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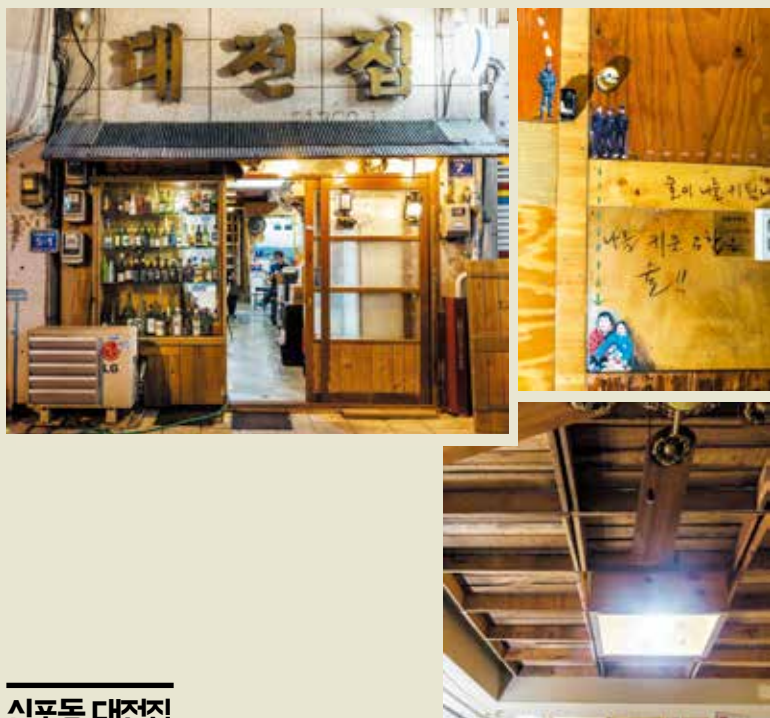
현재 주인장은 장경희(61) 씨다. 2대째 사장이다. 이 집은 고정 메뉴가 없다. 주인이 그때그때 시장에서 물 좋은 생선, 조개, 두부, 꽃게 등을 사다가 조림이나 무침, 구이를 해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두부는 3개 3천원, 5개 5천원이다. 막걸리 한 모금 들이켠 뒤, 뜨끈한 두부에 새빨간 김치를 척 얻어먹으면 금세 입안이 풍성해진다.

지금 주인은 장경희 씨지만 손님들은 1대 사장인 김영숙 씨를 더 많이 추억한다. 김 씨는 자존심이 세고 가게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다. 손님을 가려서 받았고, 추태를 부리거나 싸가지 없이 굴면 쫓아내기 일쑤

였다. 취객이나 젊은 사람들은 출입이 쉽지 않았다. 문화예술인이나 인천에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갔던 사람들 중 단골이 많았다.

오랜만에 이곳에 들렀다는 이기훈(57) 씨는 “예전엔 이곳에서 한잔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의 위압에 놀려 들어올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가게에는 단골 문인, 화가, 시인들이 술값 대신 놓고 간 작품들이 소박하게 걸려 있다. 화가 정순일의 ‘불심’, 옥계 오석환의 ‘게’, 최병구 시인의 ‘꽃같은 강산에’ 등. 창작의 고뇌를 안고 이 집 문턱을 간단없이 드나들었을 옛 문화예술인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진다. 1대 사장 김영숙 씨가 지병으로 몸져누우면서 현재 사장이 4년 전 가게를 이어받았다. 그도 이 집의 단골이었다. 손님들의 말 상대, 친구가 되어주는 넉넉하고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이다. 신포집에 오면 누구나 친구가 된다.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도 막 걸리 한 순배가 돌면 통성명을 하고 정을 나눈다.



신포동 대전집

1972년 문을 연 대전집. 주인장 오정희(77) 어르신은 대전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혈혈 단신 인천에 올라와 식당, 남의집살이를 하며 모은 종잣돈으로 가게를 차렸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아침 6시부터 장사를 시작해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팔았다. 손맛이 좋아 내놓는 음식마다 호평을 받았다. 대전집의 인기 메뉴는 동치미와 족발, 보쌈이었다. 겨울이면 동치미 무 2~3천 개를 한꺼번에 절이고 담았다. 살얼음에 띄워진 아삭아삭한 동치미와 담백한 족발은 당시 이 집을 찾던 손님들이 즐겨 먹던 메뉴였다. 술로 쓰린 속을 확 풀어주는 동치미 국물은 별미였고, 대접시에 가득 채워져 나오는 족발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타가 났다. 여름에는 시원한 찐지를 담아 내었다. 당시만 해도 신포동 주변으로 인천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동양석유, 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관들이 몰려있어 목이 좋은 곳이었다.

대전집이 있는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매립 상가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낡은 건물이었다. 1997년 IMF 때 개·보수를 하던 중 일본식 주춧돌이 드러났고 건물의 상량식을 알리는 대들보도 나왔다. 소화 7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932년이다. 이 집의 주인장인 오정희 어르신은 신포동 골목의 여장부였다. 정도를 벗어나거나 무례한 사람들은 가게에 발을 들여놓지를 못했다. 대전집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인테리어로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나름의 문화와 맛이 조화를 이룬다. 가게 벽에는 창업자인 오정희 어르신과 큰아들 가족사진과 이 집을 드나들던 문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천장은 연안부두에서 가져온 생선 껍박을 붙여뒀다. 문화공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신포동 다복집

대전집 바로 건너편에 있다. 영업한 지 50년 가까이 됐다. 다복집 문에는 이 집의 단골손님이었던 고 최승렬 시인의 두상을 본뜬 석고상이 걸려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았던 집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다복집의 명물은 단연 빨간 스지탕이다. 스지는 힘줄의 일본말로 소의 사태살에 붙어 있는 힘줄을 말한다. 스지를 오랫동안 푹 삶은 다음 다시 양념을 해서 크게 자른 감자와 함께 내놓는다. 그 모양새는 약간 불투명하지만 맛이 쫄득쫄득하고 국물도 도가니탕처럼 뽀얗게 우러나 영양을 겸비한 술국으로는 그만이다. 스지탕은 처음엔 족발보다 덜 나갔지만 사람들의 소문을 타면서 이 집의 별미로 자리 잡았다. 추억의 고정식 가스불판과 황토색 테이블도 재미있는 볼거리다. 다복집을 연 창업자는 한복수 씨다. 7년 전 작고했다. 현재는 아내 이명숙(71) 씨와

만딸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테이블 3개로 시작했지만, 장사가 잘돼 가게도 넓히고 테이블도 늘렸다. 가게는 항상 내집처럼 푸근하고 친근하다. 다복집을 사랑했던 원로시인 최승렬은 3일에 한 번씩 이곳에 들러 약주를 마셨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진, 문인, 화가들의 출입이 잦았다. 가게는 문화예술인들의 채취와 함께 신포동의 명물로 남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공간이 되었다.



화수부두 앞 부산집

화수부두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천 제2의 어항이었다. 연안부두가 생기고 어시장이 들어서면서 추억의 부두가 됐지만, 70년대만 해도 연평, 백령도 근해에서 잡은 생선의 집하 부두였다. 한때는 어선들이 늘 뽐뽐하게 들어차 만선의 기쁨을 나누던 곳이었다. 목숨만 부지하던 화수부두가 최근 어시장이 생기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아직 예전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늘고 있다.

이 한적한 부둣가에 43년의 세월을 지켜온 허름한 선술집이 있다. 이름은 ‘부산집’. 이집 주인인 유임상(88) 어르신과 고향은 경상남도 거창이지만 간판은 부산집으로 달았다. 그 간판도 오래전 태풍에 날아가 버렸다. 할머니는 43년간 안주 없이 오직 막걸리와 소주만을 팔았다. 화수부두에 고깃배가 수도 없이 드나들던 시절엔 각지에서 온 뱃사람들이 많이 찾았다. 이 가게 한가운데에는 연탄화덕이 있다.



연탄불은 일 년 내내 꺼지지 않았다. 선원들은 안주로 생선을 가져와 구워 먹었다. 화수부두가 쇠락하면서 가게도 함께 스러져갔다. 옛 단골들은 새로운 생계의 터전으로 흩어져 갔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들르는 마실집이 되었다. 소금장사 할아버지, 이웃집 할아버지의 맥 짙은 기침소리만 가게를 채운다. 주인장 할머니는 소금장사 할아버지가 시

킨 막걸리를 들이켜며 “지 한잔 먹고, 내 한잔 먹고 하지” 하며 씩씩히 웃는다. 막걸리 가격은 3천원이지만 동네 손님들에겐 2천원도 받고, 1천500원도 받는다. 주는 사람 마음이다. 그래도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노년의 쓸쓸함을 잊고 산다. 고양이 두 마리와 간판 없는 가게, 그리고 막걸리 한잔. 화수부두의 역사는 부산집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송의동 마산집

1965년 인천 송의동에 문을 연 마산집. 이 집은 타일로 장식된 연탄화덕과 그날 그날 목포와 연안부두 어시장에서 가져온 싱싱한 생선을 얼음과 함께 가득 채운 저장고가 이색적이다. 이 집만의 독특한 생선 보관 방식이다. 녹은 얼음의 양만큼 그날그날 새것으로 채운다. 마산집의 현재 사장은 박인순(62) 씨다. 2대 사장이다. 94세가 된 1대 사장 송부연 어르신으로부터 7년 전 인수했다. 이 가게

에도 메뉴판이 따로 없다. 고등어부터 갈치, 민어, 가리비, 피조개까지 싱싱한 생선이 당일 시가로 상 위에 오른다. 연탄화덕이 운치가 있어 이 자리만 찾는 손님도 많다. 빨갛게 올라온 연탄불에 굽는 생선 맛이 그만이다. 연탄에 구우면 생선 맛이 최상으로 유지된다. 여기에 막걸리, 소주 한잔을 더하면 감미로움이 절정에 달한다. 가게는 오랜 역사와 맛으로 정평이 나있어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다. 주인 박 씨는 젊은 시절 국제복장학원에



서 의상디자인을 배워 23년 동안 신포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했다. 인천 토박이다. 그녀는 중구 중앙동의 일본 적산가옥을 개조해 만든 카페 ‘팻알’에서 태어나 결혼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팻알로 변한 그 일본집은 친척의 집이었다. 마산집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가까워 경기가 있는 날에는 손님이 부쩍 늘어난다. 외관은 허술하다. 그러나 한번 찾은 손님들이 꼭 다시 찾는 맛집이다.



부평막걸리집 개코네

1호선 부평역의 한길안과병원 뒷골목에도 오래된 선술집이 있다. 17년 역사를 가진 이 집은 후덕한 주인장 때문에 단골손님이 많다. 주종은 인천 막걸리인 소성주. 찌그러진 주전자에 두 병이 들어간다. 10년 이상 사용한 주전자만 해도 십여 개가 넘는다. 이 집의 볼거리다. 안주는 1만 원에서 1만5천 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녹두전, 생굴, 두부김치, 도토리묵 등. 인심 좋고 싸고 맛깔스럽다. 단골들은 이곳 막걸리가 신선해 특유의 트림이 없어 좋단다. 주인장 이수연(62) 씨는 춘천 출신이지만 99년 남편과 함께 춘천과 부평에 막걸리 집을 열었

다. 춘천은 이 씨가 부평은 남편이 맡아서 했지만, 부평의 장사가 잘 안되면서 이수연 씨가 인천으로 올라왔다. 아이 넷을 떼어놓고 올라와 매일 새벽시장에서 안주 준비를 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장사를 했다. 힘에 부쳐 서서 잠을 청할 때도 있었다. 그녀의 고된 인생은 올 초 큰 병으로 나타나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개코네 막걸리는 손님들과 동고동락하며 여기까지 왔다. 시민들은 인생의 시름과 걱정을 막걸리 한 사발에 녹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막걸리 한 사발에 서로 마음을 열고 훈훈한 정을 주고받는다. 주인장은 막걸리를 팔아 인생을 샀다고 말한다.

‘재기발랄 독립영화’로 레드카펫 밟다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C급’ ‘병맛코드’로 불리는 2류 문화를 영화에 녹여낸 자칭 ‘인천사나이’ 백승기(33) 감독. 인천을 배경으로 개성넘치는 주제를 영화에 담아내고 있어 요즘 가장 ‘핫’한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술을 전공한 백 감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찍고 있다. 영화를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연기를 배운 적도 없지만 오직 영화를 찍고 싶다는 열망과 열정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학생 때는 친구들과 70만 원짜리 캠코더 한 대를 들고 유명 영화를 코믹하게 패러디물로 만들었다. 영화감독 팀 버튼의 ‘가위손’을 ‘망치손’으로, 은하철도 999는 동인천 지하철을 세트삼아 ‘은하전철999’라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다빈치코드가 유명했을 때는 인천의 절을 돌며 ‘달마도코드’를 제작했다. 패기 넘치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당시 이 영상물들은 UCC가 인기를 끌면서 네이버 메인화면에 소개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실험적인 동영상으로만 여겼지 영화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각종 영화제에 문을 두드렸지만 고배를 들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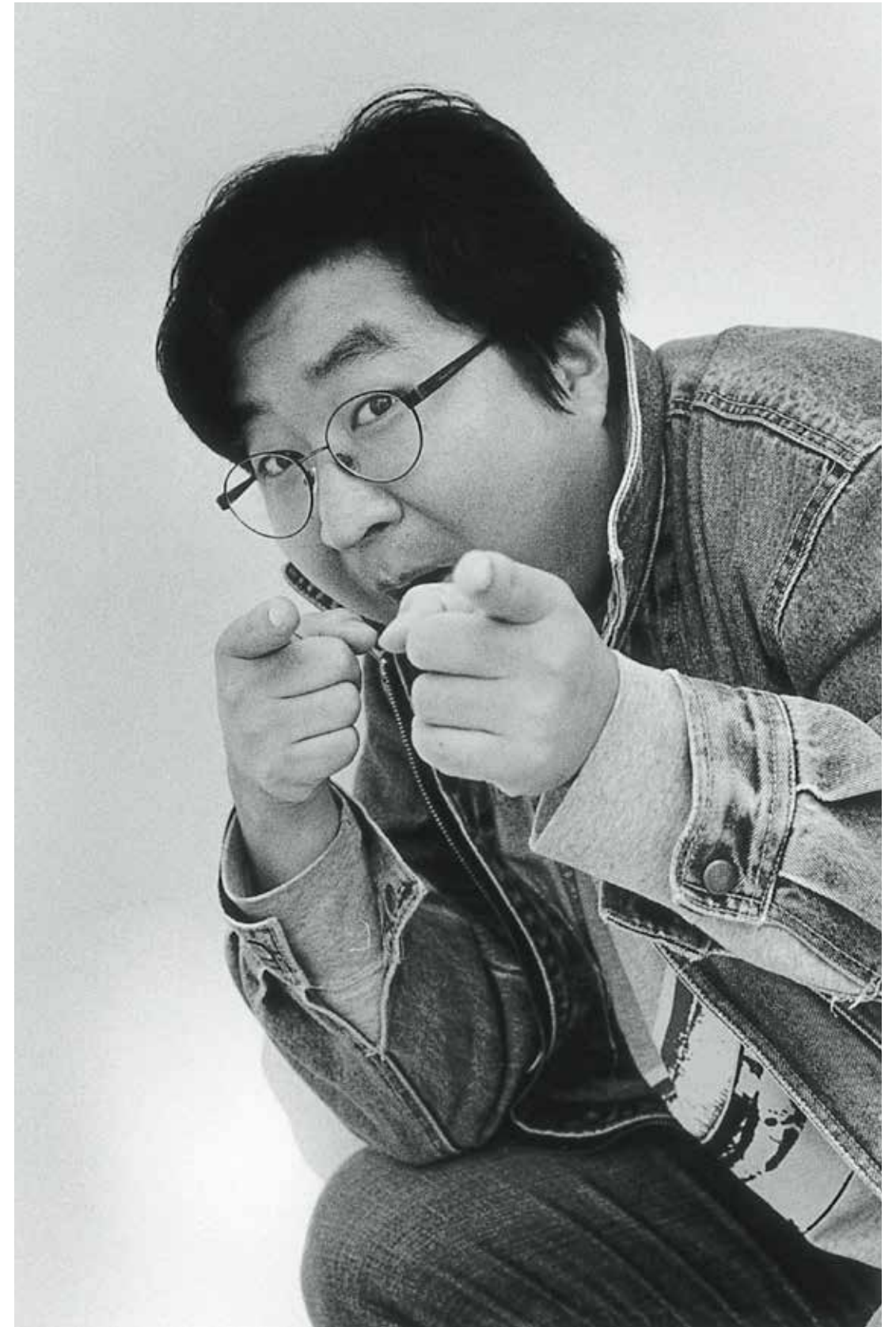
그래도 백 감독의 도전 정신은 멈추지 않았다. 영화로 열정을 펼치고자 동인천 삼치골목에 ‘꾸러기 스튜디오’를 열었고, 옥상영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극장 CGV를 패러디해 멀티플렉스동네극장 ‘DGV’를 열어 동네 주민들을 위해 영화를 틀었다. 부모와 친구들의 걱정과 우려가 들려왔지만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철학은 변함이 없었다.

백 감독의 이런 노력은 2012년 ‘숫호구’로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상을 타면서 빛을 발했다. 영화 ‘숫호구’는 그

가 영화를 만들려고 남겨둔 마지막 종잣돈 100만원과 그의 친구, 가족, 지역사회가 합심해 만든 작품이다. 배다리, 동인천, 신포동을 배경삼아 촬영하는 동안 부모님과 친구들은 배우로 출연했고 누구네 집 아들이 영화를 만든다는 말에 동네 어른들은 밥을 사주고 든든한 응원군이 되었다. 스토리는 백 감독의 자전적인 내용이다. 30년간 살면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욕구불만 청년의 이야기를 감성코믹 패러디로 만든 작품이다. 이 영화로 그는 레드카펫을 밟은 영화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영화 ‘숫호구’는 그가 영화감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작품이다. 1천 만 원을 투자받았고 그 돈으로 현재 새로운 영화를 제작 중이다. 새 영화는 원시인의 이야기를 다룬 ‘시발, 놈 : 인류의 시작’이다. 이 영화로 해외 로케이션을 다녀왔고 원시의 풍광을 담고 있는 굴업도에서 촬영도 마쳤다. 앞으로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영화도 만들고 싶고, 홍상수나 김기덕 감독처럼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감독도 되고 싶다. 12월 5일에는 미림극장에서 ‘인천국제비엔나소세지영화제’를 열고 저 예산으로 만든 재기발랄한 영화들을 상영한다.

백 감독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중2병’ 때문이었다고 여긴다. 철이 덜 들었고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춘기 소년의 마음 때문이다. 영화라는 한길을 걸었던 백 감독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진다. “취업의 문턱에서 암울한 청년이 많은데 남들이 안하는 새로운 유형의 꿈을 만들며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의 외침이 어느때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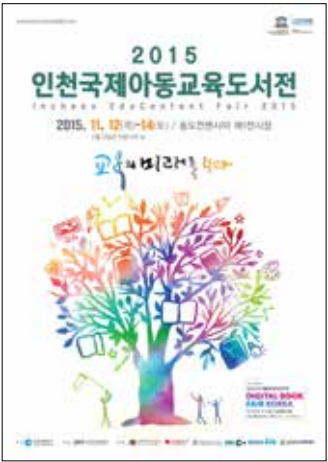
단풍놀이보다 더 재미있는 아동도서전 나들이

11월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연계해 다양한 책과 출판, 인쇄문화를 보여주는 행사들이 열려 시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인천 최초로 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열리고, 기록문화전, 팔만대장경 이운 행사가 개최되어 기록과 역사의 도시 인천이 재조명된다.

인천서 첫 국제아동교육도서전 열려

인천에서 처음으로 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열린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11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교육과 관련된 최신 '도서출판물' 및 스마트 단말기에서 구독가능한 '전자출판물'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스마트 교구를 중점적으로 전시한다. 또 아동교육과 ICT의 만남, '아동교육 콘텐츠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포럼 등 다양한 B2C, B2B가 부대행사를 구성한다. 국제아동교육도

서전은 국제적인 교육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기존의 단순 상품 위주의 전시를 탈피했다. 전시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또 우수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전시회 참여기업들에겐 B2C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참가기업의 제품 설명회 등 B2B 차원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은 세계 최대의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파트너 도서전으로, 같은 기간 송도컨벤시아 제2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5 디지털북페어 코리아'와 공동마케팅 활동을 통해 상호협력하여 진행한다.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책 박람회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해마다 열린다. 1963년 처음 개최해 올해로 52회째다. 볼로냐는 중세 이래 유럽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세계 최고의 대학인 볼로냐대학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도서전에서는 어린이들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Bologna Ragazzi Award)과 볼로냐 뉴미디어상(Bologna New Media Prize)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출판작 중 작품성이 우수한 책에 주어지는 볼로냐 라가치상은 픽션과 논픽션으로 나누어 각각 유아(0~5세), 아동(6~9세), 어린이(10~16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2000년부터는 '새로운 예술상(New Art Award)'과 문학성이 풍부한 제3세계 아동문학작품에 주는 '새로운 지평상(New Horizons Award)' 등 이 두 가지가 라가치상에 새로 포함됐다.

국제아동도서전은 다양한 행사와도 연계한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이달 29일까지 열리는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을 함께 관람 할 수 있도록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와 시립박물관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인천의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한국 기록문화의 역사를 구성한 전시인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이 열린다. '기록, 그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전시는 선사시대,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로 나뉘어 인천을 처음으로 기록한 교동암각화, 진흥왕 순수비 탁본, 흥덕왕릉 비석편, 복제본인 대장경경판, 조선왕조실록, 훈맹정음, 청일전쟁 유리 원판, 인천 관련 근현대 기록물 등 의미있는 기록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다.

팔만대장경 이운행사

인천이 기록문화의 본산임을 알리는 '팔만

대장경 이운행사'도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과 연계해 열린다. 이운행사는 학술, 시민강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대장경 관련 전시회가 이달 29일까지 시립박물관에서 열린다.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과 내용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한다. 대장경 학술회의는 이달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송도컨벤시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제는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 그리고 강화'이다. 기록문화 시민강좌는 이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립박물관에서 열린다. 전문 강사들이 시민들에게 인천과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을 이야기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다. 한국의 전통 인쇄·출판문화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록문화 체험행사도 연다. 주말 체험프로그램은 1일 3회, 시립박물관에서 행사를 갖고, 2015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은 12, 1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연다.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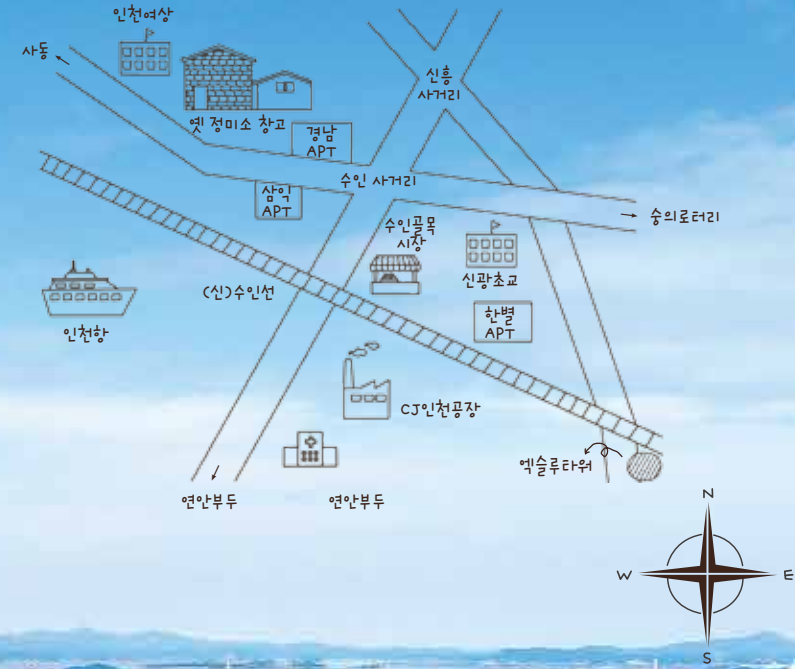


정미소 사라지고 설탕 공장 들어서다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발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 호에서는 용현동 엑슬루타워아파트 옥상에서 수인역 쪽을 바라보았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정미소 창고 ② 수인역 ③ 수인곡물시장 ④ 연합군포로수용소 ⑤ CJ 인천공장 ⑥ 인하대병원 ⑦ 인천항



까치발을 든 지점 | 용현동 엑슬루타워아파트(남구 아암대로 29번길)

남구 용현동에는 '토지금고'라는 특이한 이름의 동네가 있다. 1975년 발족한 '토지금고(현 나공사)'가 낙성 인근의 염전과 갯벌을 매립하여 시범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이름이다. 당시 현재의 송도와 청라 같은 신흥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잘 지은 양옥집과 상가 건물이 들어섰고 후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자리 잡았다. 2011년 포림산업이 53층 높이의 '용현 엑슬루타워'를 세웠다. 당시에는 아파트 중에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호 까치발 지점은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의 아찔한 옥상이다. 촬영 내내 오금이 저렸지만 절로 탄성 나오게 하는 조망 하나만큼은 최고였다. 사방팔방 인천의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눈에 들어왔다.

지금의 수인역 부근은 일제 수탈의 현장이다. 일제는 신흥동에 수인선 종착역을 만들었다. 그 철길을 따라 조선인의 울분과 탄식이 실려 왔다.

일제는 수인역 인근에 가등(加藤)정미소, 역무(力武)정미소 등 크고 작은 정미소를 세우고 일본으로 쌀을 반출하기 위해 협궤열차의 기차길을 창고 안까지 연결했다.

현재의 삼익아파트 부근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 왔는데 정미소에서 나온 누런 왕겨가 영종도 앞바다까지 둥둥 떠다녔다.



① **정미소 창고** : 1930년대 일제는 경기도 이천, 여주 등 곡창지대의 쌀을 수인선 협궤열차로 운반해 정미한 후 일본으로 반출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정미소 창고들은 한동안 사동 삼거리부터 수인역까지 어깨를 겹치듯 줄지어 있었다. 고려정미소, 선경창고 등으로 불리다가 70년대 들어 하나둘씩 디스코텍과 카바레 등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현재는 대형마트, 가전양판점,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서너 동의 창고만이 옛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② **수인역** : 1937년 협궤열차 수인선이 건설되었고, 철로는 정미소가 있는 수인역에 닿았다. 광복 후 수원, 군자, 소래 등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키운 닭이며 각종 곡식을 이고 지고하며 수인역에 내려놓았다. 기차가 서자 사람과 물자가 몰려들었다. 자연스럽게 마을이 들어섰고 주위에 금세 장이 섰다. 반짝 장이 서는 동안 열차 맨 앞 기관차는 거대한 회전기를 이용해 다시 수원 방향으로 놓인다. 1979년 종착역이 송도로 변하면서 수인역은 급격히 쇠락했고, 1948년에 세워진 옛 역사(驛舍)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③ **수인곡물시장** : 옛 수인선과 역은 사라졌지만 열차 때문에 생긴 시장은 그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곡물상과 고추판매상 그리고 기름 짜는 집 등 40여 점포가 신광초교 담벼락에 기대어 '수인곡물시장'이란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한별아파트 자리에는 인천 최대의 농산물 감시장 이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김치공장이 세워졌다. 그곳에서 만든 김치는 월남(베트남)에 보내져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농협하나로마트가 개장하는 등 농산물과 관련된 시장이 계속 이어져 왔다.



④ **연합군포로수용소** : 일제는 서울, 부산, 인천, 흥남의 네 군데에 연합군포로수용소를 설치했다. 1942년 말레이반도 전투에서 잡힌 영국군 포로들을 비롯해 미군 포로들이 이곳까지 끌려왔다. 인천의 포로수용소는 신광초교 자리에 있었다. 신광초교에서 직선거리로 400여m 떨어진 인천여상에는 일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신사(神社)가 있었다. 그들은 신사를 보호하기 위해 포로수용소를 방패로 삼았다.

⑤ **CJ 인천공장** : CJ그룹의 모태는 제일제당이다. 1970년 수인역 부근 신흥동 2만4천여 평(8만㎡) 부지에 제일제당 공장이 준공됐다. 이 공장에서는 사탕수수 원료를 수입해 '백설표' 설당을 생산했다. 매일 설당 짜는 단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다. 사진은 준공식 날 공장을 둘러보는 이병철 회장(앞줄 안경 쓴 이)의 모습이다.

⑥ **인하대병원** : 인하대는 1984년 의대를 신설한 후 90년 750병상 규모의 의과대 부속병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96년 인하대병원은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⑦ **인천항** : 인천항은 1974년 5월 10일 제 2도크가 완공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다. 66년 4월 소월미도와 월미도 사이를 매립하기 시작해 8년 만에 갑거(閘渠·수로)와 갑문(閘門)을 갖춘 국제항의 면모를 갖춘다. 이 공사에는 연인원 300만 명이 동원됐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간 만큼의 콘크리트가 사용됐다.



- 1 이제 몇 동 남지 않은 옛 정미소 창고
- 2 마을 한가운대를 지나던 수인선 철길. 얼마 전에 이 철길도 사라졌다
- 3 곡물상, 기름집 등이 있는 수인곡물시장
- 4·5 광복 전까지 연합군 포로수용소가 있던 신광초교와 광복 직후 성조기가 걸린 포로수용소의 모습
- 6 제일제당 인천공장 준공일에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이병철 회장 등 임원들
- 7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참석한 인천항 선거 준공식

6

연희판놀음 '상생의 비나리'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원
☎ 505-5995



10

인천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초대
☎ 821-9901

11

인천평화복지연대 창립후원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2만원
☎ 423-9708

12

새얼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885-3611

14

김창완밴드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6만 6천원, S석 4만 4천원
☎ 1588-2341

플라잉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2시, 5시
학생 무료, 일반 1만원
☎ 760-3457

인천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음악회
'유재하와 라흐마니노프'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전석 2만원
☎ 580-1198



17

애니메이션 '마야' 상영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자유 관람
☎ 899-1554

18

작은 행복을 나눠주는 천사들의
'미추홀 요들단 정기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765-0220

오페라 '지젤'(스크린 공연)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실
오후 7시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899-1516, 7

19

품격 살롱 스테이지
커피 향 가득 '브런치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전석 1만원
☎ 580-1198

20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황제와 영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판소마임 '몸짓이 있는 판소리 한마당'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원
☎ 425-8767

21

대건OB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 010-2254-6874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초대
☎ 425-8767

22

'뮤직플라이 플룻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888-0808

베누스토 경인지부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초대
☎ 010-2222-1326

25

문화가 있는 날 '송아 & 걸그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6만 6천원
☎ 586-5868

예술영재교육원 수료 발표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무료
☎ 760-3426

26

미추홀은빛오케스트라 & 합창단 정기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457-5403

굿바이 수능! 홀가분 콘서트 '스윗소로우'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선착순 무료(11월 12일 오전 9시부터)
☎ 899-1516, 7

27

굿바이 수능! 홀가분 콘서트 '인천밴드협회'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선착순 무료(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 899-1516, 7

28

강부자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 1566-6551



김치 읽는 시간

저자 김진초
도화출판사·443페이지·1만5천원

소설 '김치 읽는 시간'은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김치에 언어를 입혀 놓은 김진초 작가의 다섯 번째 작품이다. 책은 13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그릇의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서사의 표층에 배치하고 그 과정에 얹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내면에 배어든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김치가 당기는 입맛에 대책 없이 끌려갈 것이다.

BOOK

윤대희 '사소한 빨'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11월 19~27일



이 달의
展

10월 30일 ~ 11월 5일	인천 미술전람회 입상작 및 초대작가 작품 전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0월 30일 ~ 11월 5일	대한민국 실버 미술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1월 2일 ~ 12월 5일	지지 않는 꽃	서구문화회관 아트 갤러리
11월 3일 ~ 11월 8일	초등교사 미술작품전시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11월 4일 ~ 11월 16일	제8회 사진집단인 사진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11월 4일 ~ 11월 16일	예사랑-침, 셀렘, 그리고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11월 6일 ~ 11월 11일	인천 건축문화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13일 ~ 11월 19일	박재만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1월 18일 ~ 11월 29일	한·중·일 수채화 교류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11월 19일 ~ 11월 27일	인천환경공단, 맑고 푸른 환경사진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11월 20일 ~ 12월 3일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 특별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20일 ~ 12월 3일	수험생을 위한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을 듣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349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의 곡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정치용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악성 베토벤의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의 선율이 흐른다. 그 시작은 발레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의 서곡이 연다. 이후 베토벤 음악의 ‘남성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피아니스트 한상일과 함께 연주한다. 마지막은 교향곡 ‘제3번 영웅’이 장식한다. 감수성이 눈뜨는 늦가을, 예술가적 열정으로 가득한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시련을 이겨낸 영웅의 위대함을 느껴보길 바란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황제와 영웅’

일정 11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역사와 현실이 공존하는 도발적인 창작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기획 프로그램 ‘스테이지 149’의 작은 코너, 최고의 연극 세 편을 모아 선보인 ‘연극선집(演劇選集)’. 그 마지막은 사회성 짙은 작품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박근형 작가의 2014년 작 ‘만주전선’이 장식한다.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받기도 한 이 작품은, 작년 가을 초연 당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차별을 견디지 못해 만주로 이주한 청년들이 고위관리가 되어 일본인처럼 살기 바라는 모습을 꼬집으며, 광복 70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역사를 생각해보게 한다.

스테이지149 연극선집3 ‘만주전선’

일정 11월 13일(금) 오후 2시, 8시
14일(토) 오후 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격정적인 선율, 어두운 그림자 드리운 변주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두 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ee Concert)다. 전석 1만 5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커피콘서트만의 매력. 서울시향의 바이올린 수석 임가진, 김덕우, 첼로 수석 주연선, 독일 앙상블 모데른의 멤버로 활동한 비올라 이수민이 함께 팀을 이뤄 2013년에 결성한 ‘콰르텟 K(콰르텟 크네히트)’. 이번 공연에서는 격정적인 선율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주제와 변주 악장으로 유명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와 하이든, 멘델스존, 보로딘의 현악 4중주곡을 선보인다.

콰르텟 K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일정 11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퓨처 팝의 명료한 해법 ‘솔루션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브랜드 공연 ‘밴드데이’는 매력적인 밴드의 음악을 작은 공연장에서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다. 밴드 ‘솔루션스’의 음악은 다양한 장르가 혼재된 속에서도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 탄력 있게 변화하는 비트, 세련된 사운드 프로덕션으로 스타일리시함이 돋보인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평단과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멤버인 싱어송라이터 박솔, 프로듀서 나루에 권오경과 박한솔을 멤버로 영입해 4인조 밴드로 거듭난 솔루션스가 목마른 리스너들에게 좋은 해답(Solution)을 안겨줄 것이다.

밴드데이15 ‘솔루션스’

일정 11월 20일(금) 오후 8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2015년 사진그룹 IMAGO 기획전

빛이 머무는 공간에 서다

오마주, 빛에 대한 찬미!
빛으로 가득 찬 대지에 너와 마주 선다

이마고의 역사 15년, 우리는 정점에 서 있다. 안주하기보다는 치열함에 중점을 두기로 다시 한 번 되된다. 그저 역사의 증거자가 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한의 시간을 보내며 관점과 중재를 통해 우리 서로가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소공동체 안에서 번민과 애증은 말을 채찍질하는 당근과도 같다.

빛은 하늘이고 그에 대한 존경은 무한하지만 읽기 힘든 고서와 같다. 우리는 난해하고 보이지 않는 빛이라는 존재에 오마주를 보낸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행위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다. Lux! 그에게 존경을 보내며 바보 같은 전시를 한다. 나는 너를 통해 가치에 대한 확장성을 느끼지만 너, 반드시 나의 곁에서 바람과 구름과 같이 놀고 있으렴! Angelina, 나의 여신 이어, 너는 천사이자 나의 메신저임을 알고 있다.

선광갤러리, 11월 3~8일, 초대 일시 11월 3일 오후 5시

참여 작가

현종훈, 이재문, 박현수, 윤명한, 류재형, 장영식, 송미옥 김정녀, 박경자, 이경순, 박미라, 정지영, 김의경, 김지훈, 이충훈, 성경훈, 이수진

사진그룹 IMAGO는

2001년에 사진의 순수와 예술창달을 목표로 스터디 형태의 그룹을 결성하고, 1차적으로 화수부두의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멤버는 모두 17명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박미라 Indian Summer Brilliant 03



성경훈 깊은 밤의 소나기



김지훈 Time between dog and wolf



이재문 빛이 머문 자리

時間

‘사라진 섬, 파묻힌 바다, 태어난 땅’

올해 컴팩스마트시티 특별전은 고려시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간척으로부터 시작된 인천의 매립 역사를 살펴보는 전시다. 현재도 인천 앞바다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토지 확보 수단으로 대규모 매립 공사가 한창이다. 그 결과 복잡하던 해안선이 곧은 직선이 되며 인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사라진 섬

인천에는 수많은 섬이 있었다. 군사기지의 역할을 한 섬도 있고, 관광지로 명성을 떨친 섬도 있다. 강화도를 비롯해 영종도, 영흥도처럼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섬으로 태어난 섬도 많다. 간척이 시작되기 전 강화도 지역에는 강화도, 고가도, 황산도, 송가도, 석모도, 매음도, 교동도 등 수많은 섬이 있었다. 이 섬들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넓은 갯벌에 둘러싸여 있었다. 강화 지역의 간척은 몽골군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해변 방어가 필요했던 고려 말과 조선 중기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됐다. 고려 시대 이후 장기간에 걸친 간척으로 강화 주변의 섬들은 크게 강화, 교동, 석모 등 세 개의 큰 섬에 포함되었다. 또한 청라도, 낙섬, 사도 등의 섬은 대규모 매립 과정에서 그 형태를 잃고, 이제 이름으로만 ‘섬’으로 기억되고 있다.

파묻힌 바다

인천 연안의 본격적인 매립은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시작됐다. 인천의 해안선은 1910년대부터 부두, 항만 등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 사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후 주안염전 조성,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식 선거인 인천항의 축조, 송도 유원지 건설, 광복 후 난민 구호를 위해 실시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농경지 조성 등을 위한 매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동아매립지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하여 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인천의 섬들이 점차 육지와 이어져 사라지고 갯벌과 바다는 땅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인천 앞바다의 해안선은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태어난 땅

인천은 갯벌이 넓게 발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갯벌을 메워 새로운 땅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인천이 가진 최대의 자원이다. 개항 이후 매립으로 새롭게 태어난 땅은 인천 육지부 총 면적의 34%에 해당하며 현재도 매립은 진행형이다. 인천의 행정 구역은 8구 2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바다와 접하지 않은 부평구, 계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6구와 강화군, 옹진군 모두 매립으로 생긴 땅을 갖고 있다. 특히, 서구, 연수구, 중구는 도시 용지 중에서 50% 이상이 매립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탄생의 확실한 배경이 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인천 매립의 역사는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총 행정 면적의 21.7%에 달하는 약 227km²의 새로운 땅을 얻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해당한다. 이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의 특별전 ‘사라진 섬, 파묻힌 바다, 태어난 땅’을 통해 인천 매립의 역사가 인천 도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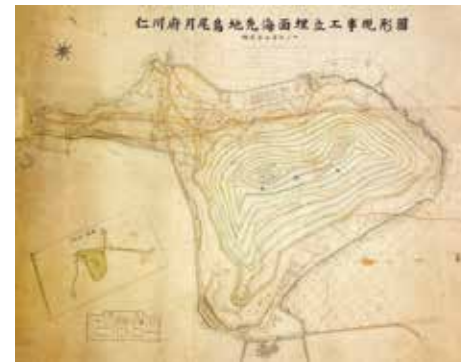
전시 기간 8월 25일(화)~11월 29일(일)

전시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2층 기획전시실

※ 2016년 3월까지 전시 연장 예정



Tip 이것만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전시 유물



일제강점기,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월미도 매립 현황도

일제강점기 월미도 매립과 관련해 제작한 현황도다. 월미도 전체를 화면 가득 배치하였는데 월미산 정상에는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들이 세운 애당신사(愛宕神社)와 전망대 등이 나와 있다. 1923년경 월미도 유원지 건설과 관련해 조성된 조탕(潮湯), 풀장, 해수욕장 등도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이러한 대규모 유원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 23,141㎡의 해면매립이 이루어졌다. 화면 왼쪽 아랫부분에는 월미도와 소월미도, 제방 등이 그려진 ‘월미도일반도(月尾島一般圖)’를 따로 배치했다. 1928년에 일부 해변을 매립하여 완성한 규모 40m x 50m의 대형 해수 풀장과 1931년, 1933년 사이 2차에 걸쳐 간척이 이루어졌던 월미도 제방과 인천역 사이의 해안지역(당시 ‘화방정(花房町)’이라 불림)도 표시되어 있어, 이 현황도의 제작 시기는 193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지역 기업체 인천시기(市旗) 펴리며 ‘인천사랑’ 운동 전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회장 유필우, 이하 인사랑)는 기업체에 인천광역시기(市旗) 달기 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한국닛켄을 시작으로 금년에 기업체 120곳에 시기(市旗)를 게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기 게양업체를 1천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사랑이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달 14일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국닛켄(주)에서 ‘인천사랑! 기업체 인천시기(市旗) 게양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게양식에는 유정복 시장, 유필우 인사랑 회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주)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인천시기를 게양했다. 시 깃발이 공장에 게양되는 것은 일본인 와카이 슈지(76) 사장의 지역사랑 때문이다. 1986년 인천에 공장을 설립한 와카이 사장은 2002년부터 매일 인천시기를 게양해왔다. 그는 회사를 기계제조 분야에서 중견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고마움의 표현으로 시기를 달기 시작했다. 사비를 털어 매년 인천대에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할 정도로 그의 지역사랑은 남다르다. 와카이 사장은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시기를 인천지역 기업체에 보급해 게양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장본인이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명예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기 달기 운동’ 확산을 계기로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인천사랑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440-2441

‘전국도서관대회’ 인천서 개막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지난달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됐다.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23일까지 열린 이 대회는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70주년과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선정에 맞아 ‘70년의 동행, 도서관과 도서관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대회 기간 도서관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비롯해 ‘공공도서관 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대학도서관의 미래’, ‘빅데이터 시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이어졌다.

매년 10월 열리는 전국도서관대회는 도서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도서관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행사다. 차기 대회는 내년 10월 26~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3973

송도 갯벌에 저어새 등 조류 서식용 인공섬 만든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 일대에 국제적인 희귀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섬이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말까지 총 58억9천여 만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동쪽 습지보호 지역에 8천900㎡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을 본격화하면서 인근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 서식지의 고립화가 갈수록 심해져 대체 서식지와 만조 시 물새들의 휴식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조류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열어 인공섬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2017년 8월 조성공사를 시작해 201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083

송도국제도시서 ‘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컨퍼런스 열려

우리는 지난달 27~2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15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700여 명 국내외 물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는 도시의 물 공급·관리와 수자원 보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차세대 고효율 물관리 시스템이다. 행사는 기초강연과 특별심포지엄 등으로 진행했다. 통합수자원관리(WRM) 등 6개 분과별로 스마트워터그리드와 관련된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의 연구성과와 물 부족 문제 해결 솔루션도 함께 공개했다.

문의 시 수질환경보전과 ☎440-3602

‘중국유학생 모셔라’ 유학설명회



우리는 지난달 31일 중국 자매도시인 텐진시에서 ‘인천시 유학생 유치 및 지원 대학교협의회’ 주관으로 ‘합동유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텐진 합동유학설명회는 1993년 자매결연 이후 지속적인 우호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텐진시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마련됐다. 합동유학설명회에는 겐트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청운대 인천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대학별로 학교의 특색과 장점을 소개하고 장학금 등 인센티브 제공계획 등을 통해 중국 유학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인천의 발전상, 관광자원 등을 소개하면서 인천을 적극 홍보했다.

문의 시 중국협력담당관 ☎458-7293

인천경제자유구역 자동차·로봇·항공 특화단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청라지구에 미래 신산업 위주의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까지 자동차, 항공, 로봇 관련 국내·외 첨단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특화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123만㎡)와 청라 IHP(도시첨단산업단지·64만5천㎡)에는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개발로 성장 가능성이 큰 자동차 부품·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한다.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48만9천㎡)와 청라 로봇랜드(76만7천㎡)에는 제품 조립·운반 등 산업용 로봇과 생활가전, 재해대응, 의료, 간병 등 지능형 서비스 로봇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영종 항공산업복합단지(Aviation Cluster·49만4천㎡)와 인천공항 항공정비특화단지(11만4천㎡)는 항공기 기체·엔진 정비, 부품 제작 업체가 유치 대상이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083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 시행

우리는 지난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를 시행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는 CNG버스의 연료 구매 시 그동안 현금으로 결제하던 것을 카드결제를 의무화해 거래 및 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CNG 연료 구매방식이다. 기존의 경유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유구매카드제와 연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료비는 972억 원으로 총 운송원가의 26.2%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연료비 중 CNG연료비가 무려 94.2%(92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NG 연료비의 절감과 거래·수급의 투명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면서 시는 CNG 구매카드제 의무화를 도입하게 됐다. 문의 시 버스정책과 ☎440-3942

환경교육 요람,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착공



우리는 지난달 7일 남구 학익동에서 자원순환과 환경교육 체험시설인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천 최고의 환경교육시설 건립을 축하했다. 업사이클(Upcycle)이란 업그레이드 리사이클 디자인의 줄임말로 폐기물에 디자인을 가미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건립되는 에코센터는 학익동 736번지 일원 1천275㎡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60㎡ 규모로 2016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 건축비 26억5천만원, 내부시설 및 전시·체험시설비 16억원, 생태놀이터공원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등 공사비 총 50억원을 투입한다. 문의 시 환경정책과 ☎440-3521

인천대교,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 대상' 수상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바다 위로 연결하는 인천대교 건설사업이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 대상을 받았다. 인천대교(주)에 따르면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프로젝트 트경영협회(IPMA) 2015 정기회의 겸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인천대교가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Project Excellence Award 2015) 대상을 수상했다. IPMA는 인천대교가 장기적·거시적 비전 아래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우수하게 경영하고 있고, 금융 중심의 새로운 민자사업 틀을 확립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IPMA는 이어 "인천대교가 민·관 협력 모범사례, 혁신적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장기적 비전 실현 등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민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주) 인천대교 ☎745-8114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2017년 말 완공

인천의 유명한 섬 관광지인 무의도를 2018년부터는 차량이나 도보로 갈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는 중구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건설 공사를 2017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 사업에 국비 247억 원을 포함해 총 494억 원이 투입된다. 잠진도~무의도 교량은 길이 1.3km에 왕복 2차로이고, 도로 양쪽에 인도도 설치된다. 이 교량이 완공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 영종도를 거쳐 잠진도·무의도까지 차량으로 오갈 수 있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572

서인천C(서울 방향) 10월 말 개통



우리는 경인고속도로 이용·접근성 개선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폐쇄돼 있는 기존 서인천C(서울 방향)를 지난달 28일 개통했다. 기존 서인천C(서울 방향)는 지난해 9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연결 과정에서 진·출입 방법이 변경(서울 방향으로 약 1km 이전)되면서 폐쇄됐다. 시는 고속도로 이용·접근성 저하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좌회전 금지 조건(서쪽으로→서인천C(서울 방향))으로 개통에 합의했으며,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후 정비공사를 착공했다. 문의 시 지역개발과 ☎440-4512

“금연구역입니다”...금연벨 21곳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을 알려 주는 금연벨이 최근 인천 21곳에 설치됐다.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경고 메시지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직접 요구할 필요 없이 벨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흡연에 따른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신세계백화점 버스정류장, 자유공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주요 금연구역 21곳에 금연벨을 설치했다. 금연벨은 올해 들어 부산 사하구, 경기도 양주시, 충남 당진시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문의 시 건강증진과 ☎440-2724

내년 춘절 맞아 '유커 유치' 프로젝트 가동

인천관광공사가 중국인 관광객 유커 유치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관광 관련 13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춘절 대박 프로젝트 TFT 발대식을 지난달 26일 인천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춘절 대박 프로젝트는 2016 춘절 시즌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관광공사가 인천상품 운영업체들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중국 관광객을 업체별로 유치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관광상품 구성체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의 인천관광공사 ☎899-7462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 5곳' 더 유치



외국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종합대학 형태를 이룬 국내 첫 교육모델인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세계적인 명문대 추가 유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세계 100위권 대학 4개 교가 분교를 설치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2022년까지 세계 50위권 대학 5개 교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종지구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코널대에 이어 미국 내 호텔경영학 분야 2위 대학인 라스베이거스 주립대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 국립음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버토리 분교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332

‘문화도시 인천’ 미술협회와 업무협약



인천광역시의회와 (사)인천광역시미술협회는 지난달 13일 미술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인천을 국제적인 미술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인천 전 지역을 미술작품으로 새단장하여 예향의 도시로 격상하는 사업과 관광도시 증진을 위해 인천을 국제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인천의 정신문화가치 창조와 세계 미술 중심도시로서 국·내외 미술문화 융성을 위해 ‘인천세계미술제’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국격과 인천의 위상을 동시에 높이는 일에 상호 지원 협력하는 방안을 담았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결사반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3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과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북한의 도발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 앞바다에서 해양경비안전 본부를 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노경수 의장은 “올해 초 해경 해체와 맞물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아 지난 8월 해상시위를 경고하고 나선 적도 있었다. 또한 인천은 북방한계선(NLL)에 접해 있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인천에서 해양경비 안전본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계획 철회’ 건의안 제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새누리, 웅진)이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계획 철회 건의안’을 발의했다.

발의 의원인 김경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29일 허용한 탄력운임제에 이어 유류할증제까지 도입한 것은 도서지역의 정주여건과 사회기반 시설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체계를 간파하고 시장논리에만 의존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달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 운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이 고잔중학교 학생회 임원 및 자치법정 동아리 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의회 소개에 이어 이수민 전문 강사로부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을 들었다. 특강 후 모의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예비심사와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후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토론 후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직접체험하면서 조례 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모의의회 처리 안건으로는 두발 및 용의 복장 규제 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었고, 대학입시 인성평가 반영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교복 나눔 운동, 교복 공동 구매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이 있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김경선 의원(웅진군, 새누리당, 사진)은 지난 9월 15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북도면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통·폐합학교생활지원 축소 움직임과 관련하여 제반 문제점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교생활 지원은 도서지역 학교 통·폐합에 따라 도선 등을 이용하여 등·하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통·폐합 학교생활지원 축소는 당초 취지, 현재 통학 실태 및 학부모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금 축소는 향후 북도 및 소야도의 연륙교 등 등교 여건이 개선된 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다.

첫 날은 인천시 박명성 재정기획관의 송도 6·8공구 토지 매각 현황에 대한 보고와 신동명 건설교통국장의 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사항 보고에 이어 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다. 둘째 날은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과 김상용 정보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14명의 특수목적법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진행시켰다. 이번 사무조사에는 총 4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3일(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15년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덕 위원장 주재로 무상급식, 행복배움학교 등 주요 교육 시정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용덕 교육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들의 고견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텐진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지난달 19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텐진시 대표단은 시의회를 예방하고 양 도시의 상호우호교류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경수 의장은 “세계 10대 항구 중 하나인 텐진항과 중국 3대 도시로서 중국 경제를 이끄는 항만, 물류 산업의 중심도시인 텐진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끌고 있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양도시가 경제 협력과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오하이위안 주임은 “인천의 IT, 물류, 첨단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인천시와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희망한다”며, 특히 시의회와 더불어 문화교육 등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섬마을 학생 통학지원금 간담회



재산매각 상황 특위, 관계기관 보고 받아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개최

중국 텐진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방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 행정감사를 의결하고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고 필요한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위원회별 활동을 위원회 순서대로 소개한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재산매각, SPC조사특위 구성 가결안 의결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결의안은 인천시가 송도6·8공구 토지와 인천터미널 부지중의 재산매각이 불합리한 계약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인천시가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수목적법인들이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운영과 비현실적인 사업추진으로 인천시의 재정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특위를 구성하여 인천시의 주요예산 매각 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운영상태를 점검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조사특위를 통해 재산매각과 관련된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특수목적 법인의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회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의정 활동 및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평소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과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3월 17일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은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상임위원회 직무에 대한 의정활동 자문 및 연구조사, 자료수집,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영종·검단아파트 민간기업 건설 참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영종하늘도시 A27블록·검단신도시 AB1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공사가 소유한 영종 A27블록과 검단 AB13블록 부지에 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건설회사가 함께 영종하늘도시와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공사는 땅을, 건설회사는 돈을 내고 공동으로 개발한 뒤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향후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원회는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인천시 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자부담금은 12만 원에서 15만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인천도시공사개정조례안과 국제교류재단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숫자로 보는 의정 성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7대의회 개원부터 지난 10월까지의 주요 의정성과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숫자로 정리해 보았다.

2018년

581건

7대 의회는 지난해 11월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581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과거 호통만 치던 감사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지향했다.

8조 2,286억 원

7대 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재정건전화, 교육 반값 실현, 전통시장 활성화 등 46회에 걸친 공감토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결정에 반영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자주 마련할 방침이다.

46회

180곳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의정체험프로그램에 지난해 1천813명이 참여했다. 시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학교와 학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참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13명

16일

7대 의회는 1991년 제1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24년간 한자로 '議'로 표기되어 있던 의회 휘장을 한글 '의회'로 변경했다. 의회는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상징화를 추진했으며 의원배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글 상징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24년

7대 의회가 개원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년간 이어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이다. 그 일환으로 시의회는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2018년까지 임기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

7대 의회는 2015년 예산심사에서 관행적인 중복사업과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은 감축했고, 안전, 보육, 가족, 여성, 노인 등 민생복지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 시의회가 심사한 인천시 추경예산은 8조2천286억원이다.

7대 의원들은 의사당 내 정치가 아닌 '현장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직접 민생현장으로 나섰다. 지난 1년간 180여 개의 삶의 현장을 찾아 시민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했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시선이 '인천'으로 모였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전 국가가 참가하는 '퍼펙트대회'로 성공리에 개최되며 지난 7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특히 7대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전국 15개 광역시도를 돌며 아시아경기대회 '불업'에 앞장섰다. 타 시·도를 찾은 의원들은 해당 지역 의회의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역광장 등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찾아 거리 홍보도 진행했다. 여기에 경기관람 활성화를 위해 의원 1인당 30만 원 이상의 티켓 구매운동을 펼쳐 1천8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주민세 현실화했습니다” 증가된 재원은 시민복지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던 주민세를 물가 상승, 재정 수요 증가, 정부 지원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민세를 현실화했습니다. 증가된 재원은 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장기간 조세가 고정되어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연회비 성격의 세금인데도 개인균등분은 99년 이후 4천500원에 고정되어 있었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은 92년부터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조세로서 기능이 미약해 올해부터 아래와 같이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정된 주민세로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주민세 현실화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 시 2015년 기준 85억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증가된 재원은 시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확대됩니다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세 면제 대상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상된 주민세는 어디에 쓰이나

주민세 현실화로 인해 증가된 재원은 시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세정담당관실(440-1620),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760-7240	동구	770-6290
남구	880-7455	연수구	749-7480
남동구	453-2410	부평구	509-6280
계양구	450-5181	서구	560-4920

주민세 인상분

구분	2014년 이전	2015년 이후
개인	4천500원(5천620원)	1만원(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5만원(6만2천500원)	7만5천원(9만3천750원)
법인	5만원~50만원 (6만2천500원~62만5천원)	7만5천원~75만원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

※ 1.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1년에 한 번 8월에 과세합니다.
2. 괄호 안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한 실제 납부세액입니다.



위기 가족에 ‘파란불’ 켜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1956년 설립한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인천지부는 1992년 개소한 21번째 지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한 가족치료 사업을 23년째 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호주제 폐지부터 이혼 숙려 기간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2013년 7월부터 도입된 친권, 후견, 입양 관련 제도 개정 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구조 사업 중 인천지부는 수년째 전국 1위로 활발한 법률구조 사업을 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는 가정과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송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 가정을 위하여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법을 제시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 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소송을 지원한다. 부부상담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원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권고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외에도 다양한 위기가정 도움 사업으로 인천시의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통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법이나 대화 기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위기 가정을 위하여 상담하고 이런 부부나 가족을 대상으로 부부캠프를 실시하여 내면 치유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집단 상담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늘어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 노력해 왔다.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거주 외국인 가정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 가족치료, 캠프활동, 댄스 세러피, 문화 캠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가족통합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새혼 가정(재혼 가정)을 대상으로 댄스 세러피, 가족상담, 가족캠프를 진행하여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관계 개선을 도모한 바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산성기행

연주문화원은 산성을 찾아보는 기행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문화해설과 함께 산성을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일시 11월 28일(토) 오전 9시~오후 6시(매월 넷째 주 토요일)
장소 청주 상당산성
출발 연수구청 정문 출발
회비 추후 공지
접수 연주문화원 방문 접수
문의 821-6229

올해의 '인천인' 뽑습니다

우리는 올해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위해 인천을 빛낸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자 제1회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천기간 10월 27일(화)~11월 13일(금)
추천대상 올 한 해 뛰어난 업적으로 인천을 빛낸 인물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공적요약서 포함), 이력서, 시장 표창 동의서 1부, 공적 증빙자료 1부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포함)과 온라인 동시 제출(jeapun@korea.kr)
제출처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우편번호 21554)
문의 440-2444

2015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우리시에서는 건축문화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5 인천건축문화제'를 추진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2015 인천건축문화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송도 컴팩스마트시티, 트라이볼, 미림극장 등
※ 개막식 및 시상식 : 11월 6일(금),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주요 프로그램
 • 공모전 수상작, 건축사 초대전, 근대건축물 자료전 등 전시프로그램 9개
 • 에너지 체험관
 • 건축영화제, 건축세미나
문의 440-4723

겨울방학 재능기부 및 특강 진행

미추홀도서관은 다가오는 계절을 맞이하며 겨울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재능기부와 무료 특별기획강좌가 진행됩니다.

강좌기간 11월 30일~2016년 2월 20일(3개월)
※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접수기간 12월 5일까지
장소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대상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의전화 765-0220, 0250
홈페이지 mchart.co.kr, twitter.com/mchart0250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3개월 과정)

- 성인
 - 서예 초급(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최종영)
 -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인천대 객원교수 김준기)
 - 한국무용(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박영숙)
 - 성악교실(성악가 조외숙)
 - 연필로 하는 '드로잉과 스케치'((사)한국미협,인천미협 자문위원 이순자 수산나)

신나고 활기찬 야외수업 어린이 골프교실

- 대상 : 초등학교 이상
- 레슨비 : 3개월 15만원
- 일시 : 화, 목, 토(주 3회)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 개별레슨
- 문의 : 765-0250

애인(愛仁) 토론회

우리는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하여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천발전을 위한 '애인(愛仁)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일시 11월 10일(화), 오후 3시
장소 시청 대회의실
대상 250명
진행순서
 • 여는마당 : 특별공연(생낭공장 아가씨)
 • 주제발표 :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 원탁토론
 - 1주제 :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최우선 과제
 - 2주제 :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문의 440-2183

생생 시정 바로알기 견학 신청

생생 시정은 인천 곳곳의 경제, 역사, 문화, 산업 시설 등을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참가 대상 :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 단체, 학생 누구나
- 버스 이동으로 인하여 최소 15명 이상 신청을 요함
- 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가능
- 운영 기간 : 연중
- 집중 운영 : 3~11월(9개월)
- 견학 장소 : 인천 전역
- 경제자유구역, 역사, 문화, 산업시설 등 41개소
- 운영 일시 : 화~금요일, 일요일 2회(오전, 오후)
- 지원 사항 : 버스(45인승, 25인승), 서포터스(1명)
- 문의 : 440-2425

인천방송 '2015 영상왕 콘테스트' 공모

시민이 프로슈머가 되어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 방송서비스, 인천N방송에서 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인천을 알리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제한 없음(대한민국 누구나 참여, 개인 또는 팀 지원 가능)
공모주제 인천(인천과 관련된 모든 소재 가능)
※ 인천 특화 분야(음식, 향만, 공항, 역사) 관련 제작영상의 경우 가점 부여

시상

- 1등(1명) : 삼성전자 커브드 LED TV(55인치, 180만원 상당)
- 2등(2명) : LG전자 노트북 울트라 PC그램(13인치, 70만원 상당)
- 3등(3명) : 애플 아이패드 Air2(16G, 60만원 상당)
- 4등(5명) : 샤오미 밴드(3만원 상당)
- 5등(10명) : 샤오미 보조배터리(2만원 상당)

공모기간 10월 12일(월)~11월 29(일)

접수처 ntv@inis.or.kr(인천N방송)

문의 250-2142~3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념관 개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었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재조명하고 선수들의 성공스토리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아시아경기대회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

※ 연중 무휴 운영

관람예약

- 신청대상 : 관람을 원하는 누구나
- 단체관람 신청은 관람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허가됩니다.
- 예약 가능 인원은 1시간에 총 30명이며 초과되면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약현황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시간대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단체관람 시에는 인솔교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위치 서구 아시아드경기장 내(서구 연희동)

문의 566-2675

1년 3학기제 성인 남녀 중·고등학생 모집

남인천 중·고등학교에서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인원	5학급(200명)	주간반 : 160명 야간반 : 40명
수업연한	2년(1년 3학기)	2년(1년 3학기)
입학자격	①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②교과부 지정 성인 문해학교 초등학력인정 과정 이수자	①중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원서접수	10월 1일(목)부터~선착순 접수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토, 일, 공휴일은 접수안함)	

문의 722-1311~4

{ INFO BOX }

채무조정상담, 대출상담, 불법 사금융 신고·접수

우리는 저신용자·저소득 계층 등 서민들의 금융수요 증대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별 지원 내용

참여 기관명	주요 지원내용	요일별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지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소액대출, 부채증명원 발급	월~금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자본 창업·운영자금 대출 상담 및 접수	월~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상담, 채무 상담 및 조정 지원	수	종합민원실
인천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상담	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제도 안내, 불법사금융 신고 안내	금	

운영시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440-5663~5666

근대도시 인천과 한국근대문학

인천문인협회는 201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를 기념하여 특별한 강좌를 엮니다. 인천을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인천과 관련된 한국의 주요 문학작품을 해설하는 강좌입니다.

신청기간 11월 9일(월) 오후 5시까지

강좌신청메일

- 한국근대문학관(gangjwa01@naver.com)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문인협회 카페(cafe.daum.net/1004moonin)

장소 한국근대문학관(중구청 앞, 인천아트플랫폼 옆) 3층 다목적실

일시 및 강좌 내용

일시	시간	강사	강의주제
12일(목)	오후 6시 30분	박진영 (연세대 교수)	근대 출판과 서점의 역사
13일(금)	오후 6시 30분	함태영 (한국근대문학관 학예사)	신소설과 인천
14일(토)	오후 3시	이경재 (숭실대 교수)	한국근대문학과 인천
20일(금)	오후 6시 30분	이현식 (한국근대문학관 관장)	개항과 근대도시 인천의 문화
21일(토)	오후 5시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천의 문화적 가치

진행 이동구(광성고 교사)

강좌 문의 한국근대문학관 455-7166

로봇박사 '데니스 홍' 특별초청 강연

인천서부소방서는 소방(안전)과 교육(꿈, 호기심)의 절묘한 만남을 통해 '미래 안전을 새롭게 디자인 한다'를 주제로 미 UCLA 기계항공공학과 '데니스 홍' 교수님을 초청하는 특별강연을 엽니다.

행사명 로봇박사 데니스 홍의 '안전을 향한 미래 꿈 이야기' 특별강연

일시 11월 4일(수) 오후 3~5시

장소 인천서부소방서 3층 대강당

참석 최소 300명(인천소방관과 자녀, 신청자부모와 자녀 등)

내용 토크콘서트, 사인회 및 사진촬영 등

신청방법

- 시민(학부모와 자녀) 50쌍 선착순 모집(지정석 운영)
- 공식블로그 blog.naver.com/seobu119 방문 후 '비밀 댓글'로 참가신청

문의 723-5469

갯발 달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우리는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관공서에 인천시 갯발 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갯발 달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라며, 갯발 보급 단체 및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가로기(태극기, 시·군·구기)

규격	가격	비고
90×60	4천원	알루미늄 갯대와 황금색 갯봉
120×80	5천원	(갯발 감량 방지 회전고리 최신품)
135×90	5천원	※ 가격은 태극기 기준, 가격이며 시, 군기는 수량에 따라 (30~80% 추가)

계양대용(태극기, 시·군·구기, 새마을기, 민방위기)

규격	가격	비고
135×90	7천원	
150×100	1만원	
180×120	1만2천원	※ 가격은 태극기 표준 가격이며
210×140	1만3천원	(군·구기는 태극기 가격에서 수량에 따라
225×150	1만8천원	50~80% 추가)
270×180	3만5천원	
300×200	5만원	

문의 543-6129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지금은 칠순 할머니 된, 48년 전 아가씨

1966년 인천여상을 졸업하고 취업한 첫 직장은 '판유리'입니다. 날 좋은 어느 날 현관 앞에서 여직원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혜자 언니가 보고 싶습니다. 회사 정문 앞 담배 가게 아가씨였지요. 저는 앉아 있네요. 48년 전 제 모습이 어떤가요? 지금은 칠순을 앞둔 할머니랍니다. 이경희 시흥시 거모동



송도해수욕장, 해변의 여인

송도해수욕장의 저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정엄마도 한 몸매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칠순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분이랍니다. 김혜숙 남구 장고개로



36년 전, 졸업식에서

1979년 주안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입니다. 예쁘게 스카프 매고 신경써 차려입고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은 친척언니는 자녀들이 자식을 낳아, 이제 막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김태영 서구 청라한울로



월미도 꽃순이들

23년 전, 꽃향기를 따라 자매가 월미도 꽃밭에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의 모습이 갓 피어난 꽃을 연상케 합니다. 서로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다정하게 놀던 사진 속 꽃순이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김유진 전라북도 전주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생명 살리는 1분 1초의 소중함

글 김남일 인천소방본부 소방관



‘빼곡히 들어선 공장과 건물들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다. 긴장으로 가득한 심장의 울림이 전해온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시뻘건 불길 앞에선 어떤 잡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적재함에서 꺼낸 소방호스와 관창을 무기로 화마와 사투가 시작된다. 공기호흡기 마스크에 올려 퍼지는 가쁜 숨소리와 이미 뜨거워진 열기는 뒤로 물러날 조그마한 틈도 보이지 않는다. 구조대가 진입한다. 연기로 인해 암흑으로 변해버린 건물 내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좋으련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다. 구조대원의 간절함이 전해졌을까? 길게 몸을 늘어뜨린 사람이 구조대원에게 몸을 맡긴 채 밖으로 이끌려 나온다. 구급대원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가슴을 압박하고 호흡을 불어넣고 전기충격까지... 1%의 소생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다.’

대한민국 소방관의 화재현장 스토리다. 위기에 처한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데에는 이 같은 소방관의 열정이 있다.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소방관이라는 DNA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처음 제복을 입었을 때는 잘 몰랐다.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생계유지를 위한 선택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 건 한 건 사고현장을 겪을 때마다 소방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소중한 생명 앞에서 현장 판단의 과오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알게 되었다. 또 현장마다 신중하게 정성을 다하면서 어느덧 살신성인의 정신이 뻗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소방관만이 가질 수 있는 남다른 열정이

샘솟았다.

구급대원으로 긴 시간을 보낸 지난 기억을 되뇌어 본다. 달리는 구급차에서 우렁찬 울음과 함께 태어난 신생아, 결혼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청년, 희망의 기로에서 뇌출혈이 찾아온 중견기업의 간부 등... 지금은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끌며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해외로 사업장을 넓히는 기업의 CEO로, 모두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렇듯 소방관들의 역할은 단순히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때로는 가정과 사회를 이어주는 생명의 고리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역할의 중심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관들은 잠시도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 1분 1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린다. 현장에서 몸에 밴 열정의 힘을 원동력 삼아.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 잘 사는 삶, 잘 쓰이는 삶 ”

법륜 스님의 저서 ‘행복한 출근길’에 나오는 구절이다. 무엇이든, 어디에든 쓰여야 할 것 같다.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삶 또한 없을 것이다. 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쓸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쑥쑥 크거라”

좋은 텃밭을 가지셨네요.

햇볕도 잘 들고 배수도 잘 되고,

대파가 아주 실하게 자랐습니다.

올 김장 땀

파김치도 맛있게 담그시겠네요.

- 남구 주안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